

이미 허가한 계획을 법적근거도 매몰비용 보상도 없이...

1兆 투입 화력발전 짓지 말라는 정부

당진·삼척 4기 LNG발전소로 전환 방안 추진
산업부 “강제 아닌 자율”...손배訴 줄이듯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건설 초기 단계인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러 하자 민간 발전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보상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7일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사업 초기단계인 4기(당진 2기, 삼척 2기)는 미세먼지 배출이 덜한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5기(신서천 1기, 고성 2기, 강릉 2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배출 시설 저감 기술을 최산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전환 대상 4기는 포스코에너지의 삼척 포스파워 12호기와 SK가스·한국동서발전의 당진 에코파워 12호기로 모두 민간 발전 사업이다.

정부는 이들 민간 업체를 상대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것을 설득해 왔으나, 업체들은 추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방향을 공식화하면서 업계에 압박하는 형국이 됐다.

당진 에코파워 12호기는 대선을 한 달 앞둔 4월 3일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아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삼척 포스파워 12호기 역시 올 4월 환경영

향평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포스코에너지와 SK가스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매입, 설계, 발전설비 공급 가계약 등에 비용을 투입해 석탄 발전 건설이 좌초될 경우 총 1조 원에 가까운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5609억 원을 투

자했고, SK가스도 사업권 매입금을 포함해 4132억 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허가한 발전소 계획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언급도 없이 바꾸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나 전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NG 발전소로 다시 인허가를 받으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업계에 부정적이다. 또한, 민간 발전회사가 이미 확보한 발전소 부지는 바닷가에 있어 LNG발전소를 지으려면 부지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 LNG는 송전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심 인근에 짓지만, 석탄발전소는 수입석탄의 하역과 환경 문제 등으로 통상 항구 인근에 짓는다.

산업부는 전환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박성택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매몰 비용에 대한 보상 계획은 현재 없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백운규 장관 전기차 시승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에너지플러스2017’에서 르노삼성 전기차 시승을 하고 있다. 고이람 기자 photoeran@

‘무서운 포식자’ 베인캐피털, 누구냐 넌

얼마 전부터 ‘베인캐피털’이라는 글로벌 사모펀드가 국내 언론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낀 ‘한미일 연합’의 일본 도시바메모리 인수를 주도해서다. 여기서 국내 코스메틱 업체 카버코리아가 유니레베에 넘어가면서 베인캐피털이 골드만삭스와 함께 카버코리아의 실소유주였다는 사실도 새삼 알려졌다. 베인캐피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이유다. ▶관련기사 3면

베인캐피털은 최근 글로벌 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

다. 투자자와 파트너를 모집해 돈 되는 자산이면 물불을 안 가리고 투자하는 ‘다중자산 대안투자회사’로 이름을 알렸다. 소매업 외식업·문화산업 등 그동안 손을 뻗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다.

최근에는 AHC 제조회사로 알려진 국내 화장품 기업 카버코리아를 유니레베 글로벌에 매각해 이슈가 됐다.

베인캐피털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4300억 원에 카버코리아 지분 60%를 인수한 지 1년 3개월 만에

22억7000만 유로(약 3조478억 원)에 이를 매각해 약 6배의 이익을 얻었다. 차익이 약 2조5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인수·합병(M&A) 역사에서도 드문 규모다.

국내 뷰티업계 사상 최대 규모 M&A를 성사시킨 배경에는 베인캐피털이 있다. 베인캐피털은 투자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카버코리아는 가격 대비 품질은 우수하지만 저가 브랜드라는 이미지의 한계를 안고 있었으나 최근 제품을 다양화하고 톱스타를 모델로 가용하며 인지도

도시바 메모리 인수 주도하고
카버코리아 매각 6배 이익 챙겨
최근 글로벌 M&A시장서 두각

를 높였다. 매각에 미리 대비해 몸값을 올렸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본 도시바메모리 인수전에서도 베인캐피털은 무서운 집념을 드러냈다.

당초 SK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은 미국 웨스턴디지털(WD) 진영에 우선 협상대상자 자리를 빼앗겼다. 베인캐피털은 인수액을 높이는 등 다양한 시도로 인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막판에는 미국 애플과 델, 시게이트까지 끌어들여 결국 도시바메모리 최종 인수자로 낙점됐다. 이주혜 기자 winjh@

CESS

국내 첫 기후·에너지 포럼

기후변화·4차 산업혁명 시대...
내일 오전 9시 포시즌스 호텔

기후변화 대응 녹색지구를 위한 약속 - 시리즈 6회(끝) ▶4

바람 잘 날 없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수사 이어 고강도 세무조사惡材

대한항공이 잇따른 악재에 시름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택 공사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국세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 본사에 파견,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0년 5월 이후 만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국세청이 외형(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한항공은 2015년 또는 2016년에 세무조사를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12월 조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16년에도 국세청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대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측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촉구한다고 해서 세무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없다”며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드러난 경우 혹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세금 누락이 있는 때에만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지만, 조사 수위는 여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조 회장의 자택 공사 비리 혐의 그리고 조종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각종 의혹 등을 종합해 볼 때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 회장이 받고 있는 자택 공사 비리 혐의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세무조사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며 “고의적 탈세 혐의 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법적 조사 전환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평창동 자택공사를 진행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비용을 같은 기간 진행된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글자수 280字로 늘린 트위터 韓·中·日은 제외, 그 이유는?

아시아 문자 정보량, 서구 2배
시험운영 뒤 전체 플랫폼 확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트위터가 글자 수 제한을 현재 140자에서 280자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는 제외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이날 성명에서 소규모 그룹을 통해 트위터 글자 수 제한을 280자로 늘리는 시험을 하고 나서 이를 전체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글자 수를 늘리면 자사 플랫폼에서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고 실시간 이벤트와 토론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트위터는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아시아 문자는 그 특성상 다른 문자와 비교해 비슷한 글자 수에 정보량은 두 배가

달렸다는 이유에서다. 트위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어 트위터의 9%는 현재 140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어는 그 비율이 0.4%에 불과했다.

글자 수 확대는 사용자 증가세 정체 타파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는 트위터의 핵심 전략이다. 트위터의 지난 2분기 월 사용자 수가 3억2800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연일 거친 언론서 북한을 자극하는 등 세계적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트위터는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트위터는 “계정 삭제 시 뉴스 가치와 대중의 관심은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라며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계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머니&이슈 ▶19

전쟁나면 가상화폐 안전할까

구자열 회장 ▶10 김동준 대표 ▶15

유통명장을 찾아서 ▶12

신민정 롯데제과 매니저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노동’이 까먹은 국가경쟁력...4년째 26위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거시경제·인프라 등 기초 환경은 양호했지만, 경제효율 및 기업혁신 측면에서 부진이 지속됐다. 노동·금융 등 만성적 취약 부문이 종합순위 경제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27일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37개국 중 26위로 작년과 동일했다. 우리나라는 4년 연속 26위를 기록한 가운데, 3대 분야별 평가에서는 소폭의 변화를 보였다.

기본요인 분야는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6위로 올랐다. 거시경제는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인프라도 10위

거시경제 3위→2위 상승했지만 노동·금융은 70위권에 머물러

12개 부문간 불균형 두드러져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 병행해야”

에서 8위로 올랐다. 반면 제도는 63위에서 5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효율성 증진 분야는 26위를 유지했다. 노동시장 효율은 77위에서 73위로, 금융시장 성숙은 80위에서 74위로 부진을 지속했다. 기업 혁신·성숙도 분야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23위로 떨어졌다. 기업 활동은 23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올해 평가에서도 노동과 금융, 제도 부문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며 종합순위를 정체시켰다. 노동에서는 여성경제활동 90위, 고용·해고관행 88위, 노사협력 130위를 기록했다. 금융에서는 은행 건전성 91위, 대출 용이성 90위,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은 64위에 머물렀다. 제도의 경우 정부 규제 부담 95위, 정책결정 투명성 98위, 기업 경영윤리는 90위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스위스·미국·싱가포르가 각각 1·2·3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반적인 순위변동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WEF는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3대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137개국 중 순위(2017년 기준)

연도	순위
2009년	13위
2011년	19위
2013년	22위
2015년	24위
2017년	2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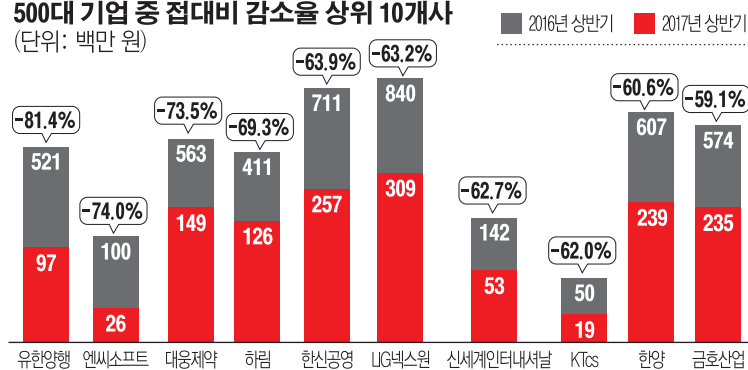
구분	순위(2017년)
기본요인	16위(19)
효율성 증진	26위(26)
기업혁신·성숙도	23위(22)

순위(괄호는 2016년 순위)

데이터 뉴스 Data News

500대 기업 중 접대비 감소를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 원)



김영란법 시행 1년... 올 상반기 기업 접대비 15% 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접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의 상반기 접대비는 총 970억 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139개사의 매출은 6.3% 올라 법 시행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줄인 대표적인 기업은 유한양행(81.4%), 엔씨소프트(74.0%), 대웅제약(73.5%)이다. 전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기업의 73.4%인 102개사의 접대비율이 줄어들었다.

접대비율을 늘린 기업은 37개로 미래에셋코리아(94.6%)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미래에셋대우는 945억 원을 늘려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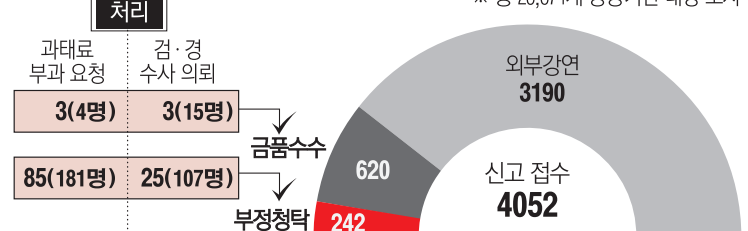
류정훈 기자 jungh216@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2016년 9월 28일 ~ 2017년 7월 31일)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외부강의 지연신고·미신고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금 초과 수수만 과태료 부과 대상
※ 총 23,874개 공공기관 대상 조사



‘김영란법’ 위반 신고 접수, 10건중 8건은 ‘외부강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10개월 동안 총 405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79%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 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사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05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 강의 3190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 185명이고,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 122명에 달한다.

또 부정청탁 등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9건, 46명이다. 부정청탁이 1건에 1명이고, 나머지는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것이다.

이밖에도 금품 등 수수 신고의 경우 620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 요청 85건, 수사 의뢰 25건, 조사 중 70건, 자체 종결 440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박삼구 손 떼는 ‘금호타이어’ ‘문재인식 구조조정’ 시험대

오늘 박 회장·이한섭 대표 사임

채권단, 1조3000억 여신 유예

‘경영공백 최소화’ 내달 사장 선임

文 정부 ‘일자리 창출’ 기조 유지

‘인력감축’보다는 ‘고통분담’ 예상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할 예정인 금호타이어가 향후 문재인 정부식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은 일자리 창출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관계자 모두의 고통 분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금융권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과 이한섭 금호타이어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한다. 채권단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즉시 새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재계 및 복수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업 대표의 새로운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40~50일이 소요된다”며 “금호타이어는 경영 공백을 피하기 선임 전 내정자가 경영을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박삼구 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충실의무 차원에서 새 경영자가 올 때까지 잔존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사장 선임까지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내정자가 임시 주총 전 먼저 경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경영진이 물러나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은 본격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착수한다. 채권단은 우선 삼일, 삼정, 한영 세 곳 중 한 곳을 실사 자문단으로 선정한다. 2~3개월이 걸리는 실사 결과에 따라 신규 자금 투입 여부 및 세부 방안이 결정된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내 여신 만기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금융권에 잡힌 여신 규모는 3600억 원이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600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금호그룹과 채권단이 함께 나머지 2000억 원에 대해 중국 금융권을 개별 접촉해 만기

연장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는 올해까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발 채무가 없다면 출자전환과 감자 가능성은 낮다. 다만, 중국 금융권이 여신 만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때 지원 분담액은 자본율에 근거해 산정하게 된다.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손실 분담을 꺼려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노동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므로 대규모 인력 감축은 선택지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 모두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 고통 분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구조조정의 제1 원칙인 고통 분담 없이 금호타이어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계 및 구조조정 관계자는 “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해야 일자리가 유지된다”며 “구조조정 처음과 끝은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 금호타이어 지원 불가파... 신용등급 ‘곡소리’

자회사 출자 통해 간접지원 가능성

저가항공 경쟁·사드보복 절약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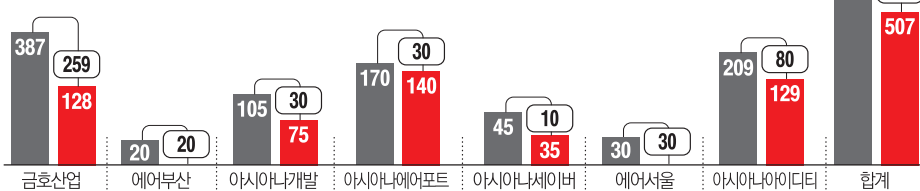
‘부정적’ 신용등급, 추가 하락 압박

한신평은 아시아나항공의 직접적 지원이 없더라도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등 자회사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 부담 확대 등 계열위험이 가시화하면 이미 ‘부정적’ 전망을 달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은 곧바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김용건 한신평가기업평가본부 실장은 “아시아나항공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차입금을 축소해 나가는 것보다 계열 부담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협약에 대해) 신용도 전망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년 중 금호홀딩스 계열사 자금거래 내역 (단위: 억 원)

※ 출처: 한국신용평가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위협하는 요인은 산재해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은 LCC 성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에어부산에 대한 보유 지분율(46%), 운항 국제 노선 등을 감안하면 아시아나항공의 LCC 성장 과실 수혜는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높은 운영 리스 비중(60.2%)으로 수익성 개선이 제약되는 비용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도 위협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KUMHO TIRE 금호타이어 매각 일지

2009년12월 워크아웃 신청

2010년1월 워크아웃 개시

5월 박삼구 회장에 우선매수권 부여

2014년12월 워크아웃 종료

2016년 2월 채권단 지분 매각 공고

11월 예비 입찰

2017년1월 우선협상자에 중국 더블스타 선정

3월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구성 검토 요청
채권단·더블스타 SPA 체결,
채권단, 박 회장 컨소시엄 구성안 거부

9월 5일 더블스타에 매각 무산

12월 금호타이어 자구계획안 제출

26일 산업은행(주채권은행)을 포함한 채권단,
금호타이어의 자구계획안 거부하고
자율협약에 의한 정상화 방안 추진,
박 회장, 경영권·우선매수청구권 포기

금호타이어 손실의 원인으로 자목된 중국 공장(홍콩 법인은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박삼구 회장과 채권단 모두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는 베트남 공장은 매각하지 않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홍콩 법인에서 중국 공장을 분리해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국 법인이 금호타이어 본사에 큰 부담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팔 것인지는 실사 후 결정한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천연가스는 어둠을 이깁니다.

자가열병합발전으로 이깁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천연가스가 함께 합니다.

자가열병합발전이란?

천연가스로 전기와 열을 생산해
대규모 발전소 투자 부담을 줄이고
건물단위 에너지 이용효율을 최적화한 시스템입니다.

지원제도

문의처

서울 02-2657-1022
강원 033-760-6634
광주전남 062-950-1141

인천 032-453-6625
충청 042-229-3417
대구경북 053-850-1821

경기 031-400-7219
전북 063-850-3822
부산경남 055-330-7705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한국가스공사

2022년까지 노후 石炭발전소 7기 폐쇄·輕油차 221만대 폐차

정부, 미세먼지 감축 대책

석탄발전소 4기, LNG 등 연료전환
미세먼지 심한 3~6월 일시 가동중단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전국 확대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다음달 국무조정실 주관 TF 구성
이행실적 주기적 점검·평가할 계획



안병욱 환경부 차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30%를 감축하기 위해 7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후 화력발전소 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 경유차 77%는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나쁨일수를 7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에 나온 14% 감축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는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추진한다. 공정을 낮춘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의 LNG 등 연료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폐지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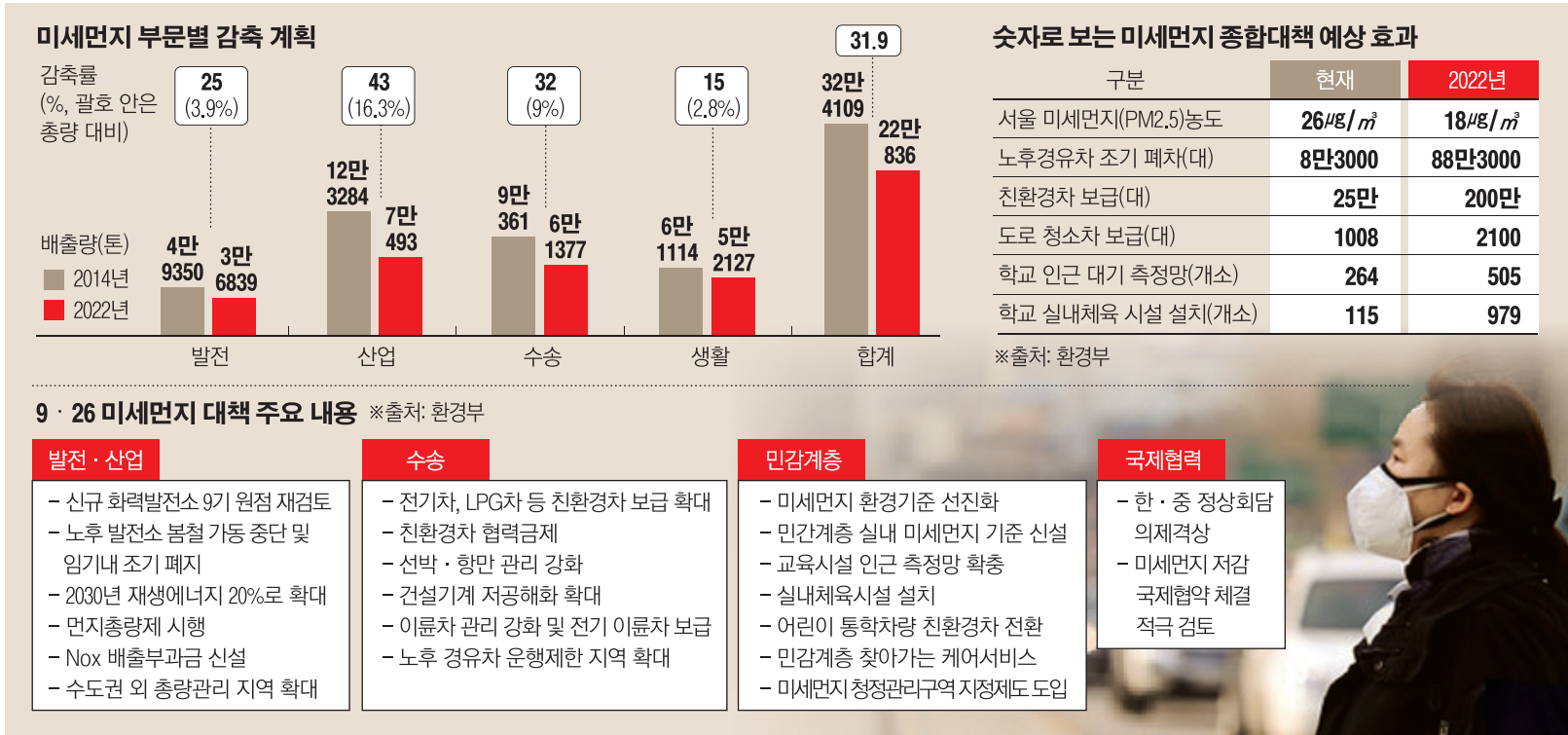
미세먼지 고통도 시존인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 대를 조기 폐차하고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운행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신설해 2021년 수도권에 시범 실시 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전기차 35만 대)를 보급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 1만 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총량관리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제적으로는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톈진·나닝·하베이·산둥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를 장기간이 아닌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



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越境性) 대기오염 협약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간계층에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행 50 $\mu\text{g}/\text{m}^3$ 에서 미국·일본 수준(35 $\mu\text{g}/\text{m}^3$)으로, 90 $\mu\text{g}/\text{m}^3$ 인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도 70~80 $\mu\text{g}/\text{m}^3$ 으로 각각 강화한다. 또 학교, 어린이집 등 민간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현재 287곳에서 2022년 505곳으로 늘리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우심지역(피해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 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 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다음달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해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안병욱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의 참여와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베인캐피탈은 어떤 기업

워너뮤직·토이저러스 등 전세계 250개 회사 투자

‘투자바이블’ ‘기업파괴자’... 상반된 평가

미국계 글로벌 투자회사인 베인캐피탈은 1984년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가 보스턴에 설립했다. 750억 달러(약 85조 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 대안투자회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미국 보스턴과 사카고, 영국 런던, 홍콩과 일본 도쿄 등 전 세계 18개 도시에서 95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베인캐피탈은 지금까지 250개 이상의 회사에 투자했다. 할리우드 AMC극장·워너뮤직 등 대중문화 산업과 버거킹·도미노피자·던킨도너츠 같은 외식업뿐만 아니라 스테이플스, 쉘리프, 캐나다구스 등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다.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해 이슈가 된 장난감 소매업체 토이저러스도 베인캐피탈이 참여한 컨소시엄 소유다.

베인캐피탈의 투자 방법은 사모펀드 업계의 ‘바이블’로 통한다. 투자한 회사에 컨설팅 자문을 제공해 이윤을 많이 남기는 방식이 베인캐피탈로 인해 사모펀드 업계에 널리 채택됐다. 스티븐 개플런 시카고 경영대학원 교수는 “매우 성공적이고 혁신적이며 이제는 모두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에는 기업 파괴로 미국 경제를 죽인다는 비판도 있다. 베인캐피탈이 기업의 배당금에서 수익을 얻는 탓에 무리하게 배당금을 늘리느라 재정이 악화돼서다. 금융 전문가 조시 코스만은 저서 ‘미국의 바이아웃: 사모펀드가 일지라와 미국 경제를 파괴하는 법’에서 베인캐피탈을 예로 들며 “수익을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명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한 토이저러스도 베인캐피탈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인수 이후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베인캐피탈, 보나도 부동산신탁이 참여해 차입매수방식(LBO)으로 인수가 이뤄졌다. M&A 대상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한 뒤 회사 자산을 팔아 이익을 되갚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토이저러스는 5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았다. 이후 재정 악화로 토이저러스는 온라인 영역에 투자하지 못했고 아마존 등 온라인 소매업체와의 경쟁에서 패하는 계기가 됐다.

이주혜 기자 winjh@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7-02748호 (2017.06.26 ~ 2018.06.25)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를 미래에셋대우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고객께 더 많은 부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미래에셋의 지혜와 경험을 모았습니다.

지금 미래에셋대우에서 세계의 우량주식을 쉽게 만나십시오.

준비된 미래에셋대우 웰스매니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3개국 해외주식거래 서비스

- 해외네트워크 기반의 강력한 글로벌 리서치
- 매월 우량종목 정보와 트렌드 정보 제공
- 24시간 해외투자 전용 주문 데스크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6800] ■당사는 이 주식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식거래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도전... 시스템 뒷받침돼야”

기후변화 대응

녹색지구를 위한 약속

글 쓰는 순서

1.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신기후체제 출범
2. 기후금융의 필요성과 활성화 대책
3. 탄소배출권 거래의 현주소
4. 기후변화 대응,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5. 기후변화 파수꾼... 국제기구들
6. 그린에너지 미래를 향한 CESS의 역할 <끝>

“분노한 자연 앞에 인류가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지구의 자원을 마음대로 쓸 권한이 있다고 인류는 착각했다. 아무 피해 없이 천연자원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만이었다.”

2004년 대자연의 메시지를 듣고 나온 재난영화 ‘투모로우’의 대사다.

2015년 12월 파리협정에 따라 신기후체제가 출범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북극과 그린란드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남태평양에 위치한 투바로는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기다. 우리나라는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로의 전환에는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신기술을 접목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저탄소 기반의 대전환을 비롯해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노력과 저탄소 기반의 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박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신홍희 한국거래소 국제거래사업단장 등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전력량 가변성 문제
실시간 계측·제어할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전력계통 시장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유상희 전력거래소(KPX) 이사장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력계통과 시장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예고하는 만큼, 현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이사장은 28일 이투데이와 기후변화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17(CESS)’에 초청 연사로 나선다. 그는 이날 ‘한국 전력시장 및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New challenges of Renewables to Korean Electricity Market & System)’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국내 전력산업에서 전력시장의 운영, 전력계통의 운영, 실시간 급전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기능을 담당한다.

유 이사장은 안전과 환경, 경제적 비용, 에너지 안보라는 3가지 주요 축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전력계통의 가변성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구름 등과 같은 날씨 변화로 인해 기존 에너지보다 간헐적이며, 출력 변동 및 예측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백업(Backup)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여름 최대 부하기간을 보면 풍력의 출력에 전력 수요와는 달리 감소하는 경우를 보이기도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만으로는 기존의 전력수요를 대응하기 쉽지 않다.

현재 전기품질 유지와 실시간 수급변화에 대응하는 예비력에 대한 별도의 시장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해외와는 달리 전력시장,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 ETS(배출권거래제) 시장 간 연계가 약한 상황이다.

유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출력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예비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의 가변성을 고려해 유연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해외 시장과는 달리 당일 및 실시간 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스스로 출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전력거래소의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출력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엘리 기자 ellee@

태양광·풍력 산업
조선·반도체와 시너지
가치사슬 만들 것



박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성공 여부는 현재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단시간에 20%까지 끌어올리느냐에 달려 있다.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각각 20%, 37%로 늘어나 비교적 전원 비중이 균등하게 분포될 것이다.”

박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3020 정책(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박 원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세계 공통적 현상”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이어 “2030년까지 45% 목표를 내세운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각각 25%, 23%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석탄이 각각 30%,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원전·석탄이 각각 18%, 25%로 낮아지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각각 20%, 37%로 늘어나 비교적 전원 비중이 균등하게 분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한국에서는 전통 에너지산업에 ICT 기술을 융합,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산업군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새롭게 분류·육성하고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 가용 가능한 신기술·ICT 등을 신속히 활용해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군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신재생 부문과 에너지 신산업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ICT 보급과 발전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부문의 태양광과 풍력산업은 각각 반도체산업과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게 박 원장의 판단이다.

이규하 기자 judi@

탄소배출권 경매 도입
정보플랫폼 구축 등
수급불균형 해소 노력



신홍희 한국거래소 국제사업단장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지난 3년간 상품별 가격과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질적 문제인 수급 불균형은 거래 부진의 원인으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17’에서 ‘배출권 시장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는 신홍희 한국거래소 국제사업단장(상무)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할당-거래-제출’이라는 전체 프로세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착했다고 보지만, 거래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집계한 결과 지난 3년간 상품별 가격과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배출권 시장 개장 첫날인 2015년 1월 12일, 7860원에 형성된 ‘KAU15(할당배출권 2015년분)’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총 162만 톤이었다. 배출권거래제 2년차인 2016년에 들어서자, 회원사들이 배출권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거래량이 더욱 증가했다. ‘KAU16(할당배출권 2016년분)’은 899만 톤, KCU16 48만 톤 등 총 947만 톤이 거래되며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런 시장 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신 상무는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월제도의 경우 배출권 잉여업체가 매도 대신 이월 선회 △차입제도의 경우 배출권 부족업체의 시장 참여 적극성 부족 △정보 제공 및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중개기관 부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참여자 제한에 따른 수요 제한 등 4가지 문제를 꼽았다.

이에 신 상무는 이 같은 과제를 풀어나갈 방안을 단계와 중장기 과제로 각각 구분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매제도(2018년 1월 시행) △거래 유연성 확대 △시장 조성자 제도(2018년 7월) 등의 도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한 배출권 경매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와 시설에서 감축한 양도 배출권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시장 조성자 제도가 도입되면 일방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거래 미형성 사례가 해소됨은 물론, 적정 호가 제시를 통한 가격 발견 기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장기 과제의 골자는 ‘배출권 시장 정보플랫폼 구축’이다. 정부는 내년에 배출권 거래제 관련 통합된 정보가 수집 가공 생성되는 정보플랫폼은 물론, 외부사업 감축 발굴·투자 촉진을 위한 참여자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Seoul Climate & Energy Summit (CESS) 2017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주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전환 전략

2017년 9월 28일 (목) 08:30~18:30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3층 그랜드 볼룸



해외 연사



카멜 벤 나세르 (Kamel Ben-Naceur)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A) 회장
더크 포리스터 (Dirk Forrister) 유엔기후변화협약 대표협약장 김 대변인
닉 너탈 (Nick Nuttall) 기후정책이니셔티브(Climte Policy Initiative) 창립자 겸 고문
토마스 헬러 (Thomas C. Heller) 기후정책이니셔티브(Climte Policy Initiative) 창립자 겸 고문
마후아 아차리아 (Mahua Acharya)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차장 겸 투자 및 정책대안 담당 책임자
브리짓트 볼르 (Bridget Boule) 기후정책이니셔티브(Climte Policy Initiative) 사무차장 겸 투자 및 정책대안 담당 책임자
필립 로우 경 (Sir Philip Lowe)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에너지 Trilemma 연구프로젝트 의장

공동주최



기후변화센터 CLIMATE CHANGE CENTER

etoday MEDIA

후원



참가신청문의 02)799-6782 jaegus@etoday.co.kr

참가신청페이지 http://www.etoday-cess.com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 횡포·담합·中企 기술탈취 부정부패 근절 차원서 집중 감시

“뇌물·횡령·배임 등 중대범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정한국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개최됐고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의 기관별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려면 가장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탕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부패방지 관련 기관별 추진과제 보고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기존의 정부 주도도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뇌물, 알선수료, 알선수재,

형량,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 단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 중심 전면적·상 시적 단속 △지역별 고질적 폐해 분석·수사 △5대 중대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구형 기준 상향 △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끝까지 추적·환수 등을 시행 하기로 했다.

김성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갑담 등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 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며 "우선,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에 종속 하도급업체에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 탈취 등은 전담조직을 통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갑질 엄중 제재와 가맹점주 의무 구매 품목 상세 공개 △유통·대리점 분야 징벌적 배상제 도입·확대와 대리점단 등 구공권 명문화 △담합에 대한 적발과 제재 강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결국 한국당 빠지고...청와대 4당 대표 만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논의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여야 4당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방미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위기 정세 해법과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4명과 만찬을 겸한 여야 회동을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끝내 불참하기로 하면서 여야 4당 대표만 참석하게 된다. 이번 회동은 5월 19일 5일 원내대표 회동, 7월 19일 4당 대표 회동도 이어 세 번째다. 지난 회동 모두 오찬이

였지만 이번에는 만찬이다. 국민의당 안 대표의 부 산 일정을 고려해 만찬으로 조정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만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위기 정세에 대한 초당적 대처 등 안보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미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 18일 부다페스트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온 미국 뉴욕 방문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논의 여
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광호 기자 khlee@

홍 대표는 또... 민생탐방 하며 “1대1로 보자”

어제 우체국, 오늘은 소방서 찾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또 청와대를 외면했다. 홍 대표는 27일 오후 7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방문 대신에 서울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민생탐방 일정을 이어간다.

홍 대표는 전날 오전 추석 전 민생탐방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송파우체국을 방문해 청와대 민간과 관련해 "(청와대가) 여야 전부 불려서 청와대 행사하겠다는 것이냐"며 "(당 대표들) 불러놓고 시열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통한 대화에는 응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홍 대표는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힘겨운 문제를) 해결할 길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고집했다.

場所 高麗大學校 校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열린 '제207회 교경아카데미'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 대표가 청와대에 발길을 끊은 것은 7·19 영수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홍 대표는 “저들이 본부중대, 1.2, 3중대를 데리고 정치쇼를 벌여도 갈 길을 간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회동에 불참한 대신 청주 수해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 안겠다” “자료제출 요구 줄이겠다”

‘갑질 국감’ 올해는 사라질까

정무위 “기업인 증인 채택 지양

꼭 필요한 경우만 CEO 출석

각 당들도 “구태 벗겠다” 선언

막말·군기잡기 없어질지 관심

국회 여당과 야당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 태세를 본격화하면서 '간질국감'의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기업 총수 등 두터운 증인 채택으로 논란이 일자 정부위원회 등은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도 기업인 군기 집기, 반발·비속어 사용,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문자와 자료 제출을 줄이는 '바른 국감'을 다짐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 들어 추석 연휴 이후 곧바로 진행될 국감에 대비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이번 국감 목표표를 각각 '적폐청산'과 '현 정부 점검'으로 내걸면서 대규모의 기관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

다. 그러나 일반인 증인·참고인 채택은 다소 신중한 분위기다.

28일 최종적으로 일반인 증인 명단을 확정 짓기로 한 정부위에서는 무분별한 민간기업인 증인 채택을 지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진복 정부위원장실 관계자는 “위증자와 여야 간 명단 조율 과정에서는 출석 대상자 수를 줄이고 다들 앉아 적정 명단을 확정하고자 기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마흔한 부분은 종합 국감에서 총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정부위원장은 19일 정부위원들과 소관 기관장들에게 “추석 연휴에 스스로 자료 요청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도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기관증인 315명과 135명을 채택했지만 일반인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 이후 결정하기로 보류했다. 국방위원회는 기관증인일지라도 논란이 되는 정의용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올해 국감인원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파산 절차 없이 정정으로 차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발

물려서 이같이 합의한 것이다.

각 정당에서도 '갑질국감' 행태를 벗어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충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재벌회장 단 내용물 잘 아는 전경면경이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는 여야 합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겠다"며 "공무원이 국감 못할 정도의 묻지마 자료요구를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도 "그동안 야당의 고질적 병폐였던 갑질, 막말, 분풀이 국감을 하지 않는 '바른국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인 굳기 집기 △민간인 소환 남발 △피갑기 갑에 대한 갑질 △변말이나 비속어 사용 등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문미타 증언채택’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최근 증언채택 관련 위원회의 심사과정과 의결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증언채택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증언채택 남용을 막으려면 소위원회를 통해 증언을 신청하는 위원들이 소위와 공개되고 표결결과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미래를 함께 하는 신한금융

신한 α

특별한 알파
트레이딩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엠폴리오

내 손안의 똑똑로봇 자산관리

투자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 제안은 물론,
수익률 및 사후관리까지!

'신한 i 알파' APP에 접속하세요!

엠폴리오 서비스는 신한 i 알파 어플리케이션 내 [자산관리 메뉴]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로보 알고리즘을 이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면
로보어드바이저의 'R-Plan'

신한금융투자 전문가들의 자산관리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S-Plan'

1588-0365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상품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한 (간접)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적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투자그룹 내 계열사는 상호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카드 등은 부모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1528호(2017.4.5), 신한금융투자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7-7991호

프로들의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연내 한일재무장관회의의…梗塞국면 풀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대기업인 대표단 만나 “협력방안 마련”
급랭했던 한일 교류 ‘물꼬’…통화 스와프 논의 재개 기대
내달 日중의원 선거 정치적 변수…개최시기 시간 걸릴 듯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뒤 급랭했던 한일 간 경제 교류가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이 연내에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일본 정부와 회의 일정 조율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권을 발동하며 내달 조기 총선을 천명하면서 한일 재무장관회의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이후 요했던 경제 교류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공개 삼아 일방적으로 잇따라 경제 교류 중단 조치를 취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 한일 고위급 경제협약도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나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경제 국면인 한일 경제 교류의 물꼬를 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26일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日韓)경제협회장(전 미스비시상사 회장) 등 주요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변대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연내에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매년 양국 장차관뿐만 아니라 삼국국이 대거 참여해 경제 현안과 경제협력 등을 논의하는 최고의 경제체널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한일 간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회의가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일곱 차례만 열렸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일정은 이르면 12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정과 별개로 일본이 내달 중의원 조기 선거를 치르는 정치적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내달 22일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내각인 집권자민당이 승리하면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다.

반면 출사표를 던진 고이케 유리코 도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경제인회의의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쿄 도지사가 맡은 신당(희망의 당)이 돌풍을 일으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시기는 더 조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실무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만, 내달 일본 중의원 조기 선거라는 변수가 발생해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시점이 12월이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면 양국 간

통화 스와프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1년 10월에는 700억 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고, 2013년 7월에는 30억 달러가 중단됐다. 급기야 2015년 2월 1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까지 끊기면서 14년간 이어지던 통화 스와프는 끝난 상태다.

양창균 기자 yangck@

추석 전 고향 시장 찾은 김동연 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둔 포석?

충북도지사·국회의원 출마설 돌아…관가서도 “정계 입문 시간문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고향인 음성을 방문한 것을 놓고 관가에서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말게는 2020년 총선을 노리고 고향을 방문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그것이다.

지난달 28일 충북 음성 무국시장 방문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역대 부총리들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기재부 자매결연시장인 공주산성시장을 가거나 서울 인근 시장을 찾았지 김 부총리처럼 자신의 고향에 있는 시장을 방문한 부총리는 없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무국시장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으로 명절을 앞두고 방문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또 “무국시장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상권·문화의 구심점이며 지자체·주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가에서는 김 부총리의 음성 방문이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도지사다. 내년 3선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가 충북도지사로 출마할 경우 전직 경제부총리라는 후광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김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도지사의 유력한 대항마로 꼽히기도 했다. 다만 김 부총리가 고향인 음성일 뿐 지역에 기여한 게 별로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그가 2020년 총선을 노리고 고향을 방문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경제부총리로서 2선 의원으로 과산이 고향이고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김 부총리가 민주당 소속으로 나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관가에서는 김 부총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계에 입문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본다. 참고 출신에 야간대학을 졸업해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그의 이야기가 선거전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김 부총리를 그냥 놔둘 리는 없고 부총리 자신도 욕심이 매우 많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계에 진출할 것으로 보는 게 정설”이라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sogood@**

“대부업 최고금리, 대출기간·신용별 차별 적용해야”

입법조사처 “현행 금리도 정착 안 돼…시장 모니터링 후 추가 인하 검토” 정부와 엇박자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를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진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만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연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낮추려는 문제인 정부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 분포는 4~6등급 중신용자 비중이 상승하고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신용자 대부잔액의 절대액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보다 대출상품과 금액, 대출기간,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조처는 우리나라의 대부업 금리 인하주기가 2~3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도 언급. 일본처럼 적절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도 제언했다. 지난해 3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정부에서 또다시 낮추려 하는 데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입조처는 “이자율 법정상한이 인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향후 대부업의 시장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만기 미도래 계약 채권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금리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시장의 영향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자율 상한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형 대부업자들의 음성화

로 인한 불법 자금유 확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민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부업금융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주문도 나왔다. 입조처는 “IPTV가 보편화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한 대출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하고 있다”며 “IPTV도 광고 심의대상 매체로 포함해 대출광고 상품에 대한 단서조항의 노출시간과 크기를 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광고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기자 bomnal@

한전, 軍부대 전력 현대화 추진

국방부와 전력설비 개선·관리 협약

최근 북한 핵 실험과 연이은 미사일로 도발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군부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군 전력 분야 현대화를 추진한다.

조환익 한전 사장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27일 오후 4시 국방부에서 군 전력 분야 현대화와 제대군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전은 △군 전력 분야 현대화 관련 기술지원 △군 전력설비 개선·구축, 유지 보수·운영 교육 △전기효율화 시스템 설치·운영 및 전력수요관리 사업을 지원한다. 한전과 국방부는 전력설비 고장 등 응급상황 시 상호협력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군 전력 분야 현황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전과의 협약을 통해 노

후·불량설비 개선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으로 군 작전력 강화와 전기사용 효율성 향상을 통한 예산 절감 등 유·무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기 제대 예정 군인(5~10년 복무 후 제대 예정인 군인)을 대상으로 한전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교육 이수자 기능자격 발급 △수령 협력업체 취업알선을 지원기로 했다. 한전은 올해 11월까지 교육 모집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환익 사장은 “군 전력 분야 현대화 협약은 한전의 전력 분야 최신 기술과 전력망 운영 노하우를 군에 환원하는 공익형 사업으로 전력기술을 통한 가치공유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제대군인 기능인력 양성 사업은 제대군인들의 사회 정착 지원과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KBIZ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사장님의 길을 찾아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되신다구요?
마땅한 전문가를 찾기가 힘드시다구요?
지금 바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찾아주세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무료로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법률
 ☒ 회계
 ☒ 세무
 ☒ 노무
 ☒ 지식재산

상담 받으시는 방법!

방문·유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1666-9976)를 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와 전화번호는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대 상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상담 일 매월 첫째, 셋째 주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상담시간 14:00~17:00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 접속하시면 “사이버중앙상담실”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특전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전문가가 **소장, 의견서 등 서식을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 단, 상담결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1인당 연 1회에 한함.

지원 분야!

법률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노무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세무
가장대행(회계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 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회계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의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 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등

지식재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 재산권 가치평가 등

무료 상담 **1666-9976 / www.kbiz.or.kr**

Made in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

저희 GS건설 임직원 일동은, 최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있어서, 건설사의 과잉영업 등의 문제로 언론을 통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 후진성을 지적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택업계의 만행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객 조합원님들에게는 불편과 불쾌감을 야기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점에서, GS건설의 잘잘못이나 그 정도를 떠나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GS건설은 수주전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비롯한 위법사례가 없도록, 당사 임직원은 물론 홍보대행사나 그 홍보요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중인 모든 재건축 영업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고,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다소 섭섭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막대한 홍보비용 지출을 야기하여, 결국은 고객님 자신의 원가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자체의 원만한 추진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자이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단돈 5천원에 불과하더라도, 사소한 식사제공이나 선물제공 등이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호텔 등 그 비용이 순수한 홍보목적에 맞지 않게 과다한 장소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장소 등이 예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취소하고 대체장소를 모색 하겠습니다.
3. 과도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불쾌감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 및 현혹적인 조건 또는 이면에서의 음성적인 조건제시와 그에 대한 홍보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택이라는 상품은 단순 소비재와는 달리 고객이 그 제품의 특성과 판매조건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고, 또 경쟁제품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서 선택에 필요한 이해의 깊이를 가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출기간이 단기로써 조합원 고객님들과의 소통도 일시적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사로서는 주택 판매를 위하여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전국적 가전 대리점 망과 같은 영업점포를 다수 유지할 수도 없는 만큼, 시공사 선출기간 중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주택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홍보관 등을 사업지 인근에 설치하여, 고객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방문하여 충분히 상담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순수한 홍보활동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 주시고, 또 건전한 제품비교가 아닌 허위사실에 의한 상대방 제품이나 조건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격한 제재를 가해 주시고, 홍보대행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건설사의 포괄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 및 강화하여 주시기 제언 드립니다.

GS건설 임직원 일동은 수주전의 승패를 감수하고라도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시민 여러분과 조합원님들 관계당국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품질과 디자인으로 승부하고 국내시장에서 길러진 이 경쟁력을 발판으로 현재 진행중인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물론 자이브랜드의 해외 주택시장 공략에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GS건설 임직원 일동

소녀는 오늘도 그때 성폭행범과 마주쳤다

소년법 폐지 논란에 묻힌 ‘피해자 구제법’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초등학생 A양. 지난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중학교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력’이란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정신·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A양의 가족들은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A양은 가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마주치고 있는 것. A양의 부모가 가해자 부모에게 거주지 이전을 요구했지만, 가해자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년법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숙임이는 깊어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만 있을 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없다. 소년법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나 의료지원, 가해자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 요소가 전무(全無)하다는 의미다. 소년법과 달리 가정폭력방지법, 아동

초·중 가해자와 분리 근거 없어 같은 동네·학교서 2차피해 속출 피해자 상담치료·의료지원 전무 치료비 받으려면 민사소송 해야

학대 특별법, 성폭력방지법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를 근거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는 의료지원과 상담은 물론 가해자

의 접근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을 위한 생활보조금도 지원해준다.

반면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치료비 부담과 가해자와 분리 등 2차 피해 위험요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를 받아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가해자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인권 전문 변호사는 “(소년법에 피해자 보호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1차 피해 후 회복 범죄나 추가 범죄 등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소년법에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

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사사건 전담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률과 가해자를 위한 법률로 이원화돼 있다”며 “소년법에도 피해자 보호 법률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가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또래일 경우 자존감 손상 등 발달 측면에서 피해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구제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범죄 방지법마다 피해자 보호 법률을 두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보호법을 두는 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절차상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가정폭력방지법은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 내에 있기 때문에 가족 회복을 목적으로 보호법이 있는 것”이라며 “모든 범죄법에 피해자 보호법을 다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박근혜 ‘추가 구속’ 내달 10일께 결정

檢, 추가 영장 발부 요청 “만기일까지 신문 못 마쳐”

검찰이 다음 달 16일 구속기한이 끝나는 박근혜(65·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한 증인 가운데 공소사실 입증에 위한 핵심 증인 27명 신문 계획을 제출했다”라며 “다음 달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2번 기일에 걸쳐 27명 증인을 순차적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에도 공소사실 입증에 위해 다수 증인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까지 끝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때



우 중대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 증거에 부동의해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롯데·SK그룹 뇌물 혐의 관련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혐의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부는 SK, 롯데 관련 핵심적 사안 심리를 끝냈다”라며 “‘구속’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 요건에 따라 발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심리를 마친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증인신문 일정에 대해서도 “검찰이 필요 없는 증인을 철화하면 굳이 불러서 신문하지 않겠다”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달 10일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김영란법 1년…의원회관에 쌓인 추석 선물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의원실로 배달된 선물이 쌓여 있다. 올해는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추석으로 지난해보다 선물 규모가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檢,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수사 노건호씨 “정치적 필요에 따라 모욕 반복돼” 고소

검찰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

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

으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따로 경찰에 보내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맡을 계획이다. 전날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노건호 씨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노 씨는 야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재수사론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공세”라며 “추악한 섹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FIU정보로 2조5000억 탈세 추정 ‘역대 최고’

국세청, 2000만원 이상 거래 분석 檢, 삼성 최순실 일가 지원 포착도

국세청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해 탈세자로부터 부과한 추정세액이 2조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FIU로부터 받은 정보로 부과한 세액은 작년 한 해 2조5346억 원을 기록했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FIU는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금융정보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검찰은 지난해 FIU의 정보를 활용,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약 35억 원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넘긴 정황을 잡아낸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FIU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을 비롯해 FIU에 요청한 혐의 정보 3만644건 그리고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2만6884명 분을 받았다.

공조를 통해 부과한 세금은 2012년 2835억 원, 2013년 3671억 원, 2014년 2조3518억 원, 2015년 2조3647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뿐만 아니다. 부과를 통해 실제 징수한 세액은 2014년 1조5129억 원, 2015년 1조62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7310억 원으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정 부과액이 2014년 급증한 이유는 2013년 11월 법률 개정으로 2000만 원 이상 CTR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분석했다. 그 이전에는 1000만 원 이상 ‘의심거래 보고(SRT)’만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2013년 법률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 외에도 체납액 징수 업무에도 FIU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CTR 등 FIU 정보를 활용해 국세청이 거둔 체납액은 2014년 2112억 원(2175명), 2015년 3244억 원(2428명), 지난해 5192억 원(4271명)을 기록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이투데이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버려진 아픈 아기

생후 5개월 동안 작은 몸으로 견뎌낸 6번의 수술

아기의 빛으로 남은 병원비 2천만원

아기에게도 따뜻한 봄이 올까요?

* 아이를 버리는 ‘유가’는 아동학대입니다.

국내 학대피해아동 지원 캠페인

다시, 봄

다시, 보다 그리고 다시, 봄을 선물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아기를 위한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아기 보호를 위한 출생신고

병원비 및 추가 수술비 지원

아기의 보호를 위한 장기보호시설 연계

1644-7911

미성아기후원

검색

연임 성공 윤종규 “은행장 선임 서두를 것”

(KB금융 회장)

확대위, 만장일치로 결정... 행장 분리 공식화

윤종규(사진) 회장이 KB금융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다. 윤 회장 앞에는 금융 환경 패러다임 변화, 글로벌 사업 확대,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 노동조합과의 관계 개선 등 수많은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당장 국민은행장 분리의 지배구조 변화를 안정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윤 회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이사회와 협의해 국민은행장 공백이 길지 않도록 (서둘러)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KB금융 확대지배구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임했다. 확대위는 29일 제4차 회의에서 임원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이사회에 윤 회장을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20일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윤 회장이 최종 선임되면 ‘윤종규 2기’ 체제가 시작된다.

특히 이날 확대위는 윤 회장 단독 추천과 함께 국민은행장 분리를 공식화했다.

국민은행장 선임에는 윤 회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상시지배구조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상시지배구조위원회는 윤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최영휘·박재하·김유니스경희 사외이사, 이홍 사내이사(국민은행 부행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은행장 인선 작업은 다음 달 추석 연휴 직후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말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거론되는 국민은행장 후보자 중 무게감 있는 인물은 김옥찬 KB금융 사장,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 윤웅원 KB국민카드 사장, 박지우 KB캐



피탈 사장 등이 꼽힌다.

국민은행 부행장 중에서는 이홍 부행장과 여성 임원인 박정림 부행장 겸 KB금융 WM(자산관리) 부사장 등이 언급된다. 다만 윤 회장이 내부 출신인 만큼 외부 인사가 국민은행장에 선임될 수도 있다.

앞으로 윤 회장은 지난 3년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윤 회장에게 당면한 과제는 신한금융과의 디지털 금융 선도 경쟁이다. 신한금융은 외부에서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KB금융의 해외사업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윤 회장은 올 초 해외 진출 유망 지역을 방문해 현지 정관계 인사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성과창출에 나섰다. 윤 회장이 여러 국가를 한 번에 돌며 세일즈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뱅크(BCO) 투자 실패 충격을 딛고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해외점포 수(6월 말 기준)는 19개로, 150~270여 개를 보유한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초라한 수준이다. 올 상반기 해외 점포의 순이익도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줄었다.

윤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디지털 금융을 확대해 젊은 고객층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외환 업무와 글로벌 사업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효진 기자 js62@

김보름 기자 fullmoon@

中企 235곳 도산하는 동안 제재심 5번 열고도...

‘키코 사태’ 결다리 논쟁만 한 금감원

키코 가입 업체 475곳 중
희생절차 종결된 곳 30여곳 뿐
상품구조 관련 검토는 안하고
법원 판결만 의식... 징계 미미

2008년 벌어진 키코(KIKO) 사태로 235개 중소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가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추산했던 폐업 기업수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은행 제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늦게 제기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와 키코 피해기업 등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키코 가입 업체 475곳 중 235개 기업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파산·폐업 등의 수순을 밟았다. 이 중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종결해 정상화 중인 회사는 30여 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부실채권이나 지분 매각 등으로 경영진이 대부분 바뀌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은행권 조사를 통

해 키코에 가입한 기업이 738개이며 이 중 110곳이 도산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했다. 7년이 지난 현재 피해 기업의 수가 125곳이나 증가한 것이다.

2010년 은행에 대한 제재심 역시 은행 측 조사 자료를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제공한 제재심 회의록을 보면 2009년 9월에서 2010년 8월까지 키코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만 5차례 열렸다. 그러나 키코 상품구조 자체에 대한 검토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논의는 거의 없었다. 법원 소송 논의와 결과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법원 판결이 어느정도 결정되는 시점까지 제재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거나 ‘금감원이 먼저 제제한 후 법원에서 상이한 판결이 나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회의 내용 역시 키코 자체가 아니라 은행을 손실이전거래와 오버헤지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첨예하게 다투졌다.

이는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만 키코 사태

를 들여다본 것이다. 오버헤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손실이전거래의 제재 대상 범위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사유로 3·4회차 제재심을 연기하기도 했다.

은행법과 규정 위반 여부를 주로 다루는 제재심의 성격을 감안해도 키코의 본질이 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취약한 소비자보호였다는 문제 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마저도 키코 사태가 발생한 2008년 당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실이전거래와 오버헤지 관련 제재가 대폭 약화됐다. 최종적으로 9개 은행 임직원 72명을 징계했지만 4명만 1개월 감봉 등에 처해졌을 뿐 나머지는 견책·주의 정도에 그쳤다. 막판 수정의결로 경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임직원도 상당수였다.

키코 피해기업 측 관계자는 “감독원이 키코 사태에 대한 조사에 진정성있게 임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재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BC카드 ‘2017 페이퍼리스 나무심기’ 행사



BC카드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사업을 통해 조성한 환경기금을 바탕으로 ‘2017 페이퍼리스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페이퍼리스는 카드 거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급해 온 회원용 매출표를 선택적으로 출력해 절감한 비용을 환경보호 등에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BC카드와 환경산업기술원은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레븐), 미래숲 등 참여기업과 함께 페이퍼리스 사업을 통해 조성한 환경기금으로 매년 식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나무심기 대상 지역은 황사 근원지로 알려진 중국 내몽고자치구 쿠부치사막이다. 지난 3년간 쿠부치사막에 심은 나무는 12만 그루에 달한다. 이번 식수 규모는 6만 그루다. BC카드는 나무심기가 사막화 방지를 통한 황사 감소 효과뿐 아니라 한·중 환경협력 및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BC카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GF리테일, 코리아세븐과 함께 지역 중학교 대상 교류 활동과 장애인 시설 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사진제공 BC카드

JB금융-광주은행 이원체제 본격화

오늘 내부 출신 송종욱 행장 취임
김한 회장, 지주사 역할 재정립 속제로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간 이원체제가 본격화했다. 앞으로 김한 회장은 지주사 수장으로서 평가 받게 됐다.

JB금융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27일 송종욱 은행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김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했던 광주은행은 내부 출신 인물이 이끄는 꼴이 됐다.

앞서 JB금융과 광주은행은 지난날 23일, 28일 각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지주 회장과 광주은행장 분리 인선을 결정했다. 그동안 김 회장은 성장 중심의 외형 확대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 광주은행장을 함께 맡아 왔다.

우선 김 회장 앞에는 JB금융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규모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김 회장은 JB우리캐피탈 인수를 시작으로 광주은행, JB자산운용의 계열회사 편입을 통해 그룹의 덩치를 키워왔다.

김 회장은 내실 경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평소 계열사들에 이자수익에 편중된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부문별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JB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당면 과제다.

김 회장은 동남아시아,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JB금융은 전북은행과 JB우리캐피탈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을 인수했고 미얀마 현지 법인, 베트남 대표사무소 개설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P2P(개인 간 금융)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리금 수취 권한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등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했지만 각각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JB금융이 상대적으로 순리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김 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모바일증권
나무가
시작합니다

대상: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당사 최초 신규 고객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

나무에 주식계좌 만들면, 평생 수수료 한방을 안 묻힌다!

지금, 모바일 증권 나무와 만나보세요 ● 행사 기간: 2017.08.28 ~ 2017.10.31

모바일증권 나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3712호(2017-08-23 ~ 2018-08-22)

NA
MUH
모바일증권 나무

구자열 “실행하고 실패하면 또 실행하라”

〈LS 회장〉

4차 산업혁명 유연한 대응 전략
R&D 조직에 ‘애자일 혁신’ 주문
“기존 연구…과감한 탈피” 당부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연구개발(R&D) 조직에 ‘애자일(agile-민첩한) 혁신’을 주문했다.

구 회장은 25일 경기 안양시 LS타워에서 열린 ‘LS F-페어 2017’에서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해서 민첩하게 실행하라”는 디지털 시대의 행동철학을 실천해 달라”며 “우선 실행하고 빨리 실패한 뒤에 다시 실행하라”고 말했다.

LS T-페어는 주요 계열사들의 연구개발 성과 공유회로 올해가 13회째다. 이날 행사에는 구자열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각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



25일 안양 LS타워에서 LS그룹 연구개발 성과공유회인 'T-Fair'에 참석한 구자열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에 대응하기 위해 각 회사별 CTO들이 기술 전략 키워드를 발표하고, 제조 부문 및 프로세스 부문에서 8개의 우수 성과가 공유됐다. 발표 직후 현장 투표를 통해 올해의 ‘LS Choice’ 연구 성과로 LS전선의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과 예스코의 바이오가스 제조플랜트 상용화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시상식 이후 어울림 마당 순서에서는 만찬과 함께 신입사

원들이 준비한 공연과 가수 흥진영의 축하무대 등으로 연구원들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 회장은 2015년부터 ‘R&D 스피드업’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그룹의 연구개발 및 미래 준비 전략으로 강조해 왔다. 올해는 키워드로 애자일 혁신으로 내걸었다. 그는 “성과지향적인 R&D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애자일 혁신 방식을 도입하고 표준과 절차에 얽매인 기존 연구 프로세스를 과감히 탈피할 것”을 당부했다.

LS그룹은 보수적인 굴목산업에 속한 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그룹 내부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 혁명에 뒤처지면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주력 사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 회장은 “R&D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가 크고 경쟁사가 따라잡기 힘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 R&D 역량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열리는 최고기술경영자(CTO) 간담회와 기술협의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면서 그룹 R&D 전략을 직접 챙기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한상범 “中 공장 증설 외 플랜B 없다… 정부 설득할 것”

〈LG디스플레이 부회장〉

국내 생산 댜 관세 5% → 15%
현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유출·시장 타이밍 등도 우려



“기술 유출, 시장과 고객, 타이밍의 이슈 등을 고려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중국 공장 증설 외 플랜B는 없다.”

한상범(사진)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이 2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8회 디스플레이의 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승인이 지체되고 있는 중국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장 투자와 관련해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7월 25일 이사회를 통해 5조 원을 투자해 TV에 쓰이는 대형 OLED 패널 공장을 중국 광저우에 짓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두 달 넘도록 투자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한 부회장은 “중국에 OLED 공장을 짓지 못하면 국내 8.5세대 LCD 라인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파주에는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땅도 없다”며 “내년도

물량을 이미 고객사와 협의한 상황에서 라인을 개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 OLED 공장을 건립하려는 이유로 관세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활용, 광저우 LCD 공장과의 접근성, 인프라 구축, 고객과의 점접 등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려면 관세 5%를 내야 하지만 2025년에는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1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현지 공장을 세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한 부회장은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제조 공정상의 비결을 현지인들이 알기 어렵고, 제품 개발은 한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보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라도 현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광저우에 LCD 공장을 세우고 생산한 것이 현재의 기술 격차를 이룬 밑바탕이 됐다”며 “시장이 있는 중국에서 이른 시일 내 자리를 잡아 OLED가 대체가 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삼성전자 ‘갤노트8’ 전세계 옥외광고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8’ 출시에 맞춰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옥외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라이브 메시징 기능이 추가된 S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인피니트 디스플레이, 1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가 특징인 갤럭시노트8은 15일 한국, 미국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출시됐으며, 10월까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현대·기아 ‘고급차’ 국내서 더 잘 달리네 최태원, 도시바 인수하러 일본 간다

신형 그랜저 9만대 팔려… 153% ↑
제네시스 G80·모하비 판매 증가세

현대·기아자동차의 고급차들이 내수 시장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판매 부진 속에 내수시장에서 힘을 내고 있는 고급차들이 위안이 되고 있다.

27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양사는 올해 8월까지 총 79만9438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2% 증가했으나 현대차의 경우 이 기간 45만8957대로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기아차는 34만481대로 4.9% 감소했다. 양사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77.5%로 전년 동기보다 0.7% 확대됐다.

내수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랜저와 제네시스 G80, 카니발 등 고급차를 덕분이다.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신형 그랜저는 올해 8월까지 9



만2963대가 팔렸다. 전년 대비 153% 늘어난 수치다. 제네시스 G80도 이 기간 판매량이 2만7524대로 전년 동기 대비 8.9%나 늘어났다. 반면 제네시스 EQ900은 올해 판매량은 8723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가 감소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신차들이 쏟아지면서 EQ900 판매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모하비의 선전도 눈에 띈다. 모하비는 올해 8월까지 내수시장에서 1만960대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14.7%가 늘었다. 이와 함께 카니발도 4만7460대로 8.6% 확대됐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막판 협상서 계약 미뤄져
인수 종결·협력 방안 논의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27일 일본 출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의 일본 도시바 반도체 사업 부문 인수를 마무리 짓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이사회가 끝난 뒤 일본 출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바가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신의가 있어 SK하이닉스의 일본행은 도시바 반도체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은 6월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간의 혼전 끝에 결국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도시바메모리의 자본구조는 베인



캐피탈 49.9%, 도시바 40%, 일본 기업 10.1%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베인캐피탈에 대출한 용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SK하이닉스 등 한미일연합과 도시바는 막판 협상을 진행하면서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일부 외산들은 “애플이 반도체 공급 규모 등 핵심사항에 동의하지 못한 탓에 매각 계약에 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과 관련한 이견 탓에 최종적인 인수가 연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일본행은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를 종결 짓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中 사드보복에 두 손 든 면세점

평택항 하나면세점 수익 악화

임대료 해결 못해 폐업 수준

중장기적 방안 없어 업계 한숨

나가는 면세점은 있지만 들어올 면세점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여파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1호 면세점이 나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평택항 하나면세점은 1일 수익 악화로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30일 면세점 허가가 최종 취소돼 영업이 정지될 예정이다.

사드 보복 이후 평택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5개 항로 중 1개 항로가 휴항해 매출이 줄어들자 하나면세점 측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면세점이 나간 자리에 들어올 면세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평택시 관계자는 “관세청과 특허청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관세청은 일단 12월까지 공고를 유보하라는 입장”이라며 “특허청이 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월 한화갤러리아도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기로 했다. 조기 반납을 신청한 한화갤러리아는 당초 8월 영업을 중단하려 했으나 제주공항공사가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월까지 연장을 요청해 아직 영업 중이다.

이처럼 면세점들이 문을 닫는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롯데면세점도 이미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를 놓고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28일 임차료 조정과 관련한 첫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공항공사 역시 다른 면세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인천공항공사 내 삼익약기 면세점 역시 임대료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평택 하나면세점처럼 중소·중견 면세점들의 경우 매출 하락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면세점 운영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1차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깜깜이 심사” 논란이 컸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꾸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포함한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1차인 만큼 단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일 뿐 중장기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1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방문해 “항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TF를 꾸려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하나면세점과 갤러리아의 차기 사업자가 12월로 미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고대영 기자 kodae@



금호석유화학그룹은 환경안전 설비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근무자의 안전교육을 고도화하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호석유화학그룹

금호석화 ‘녹색화학기업’으로 한 발짝 더

환경안전 설비·모니터링 체계 강화

여수사업장 무재해 18배수 달성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인류와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 화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석유화학기업으로서 최고 수준의 관리 시스템을 갖춰 제품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환경안전 설비·모니터링 체계 강화, 근무자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여수사업장과 아산의 전자소재공장이 올해 각각 무재해 18배수, 무재해 4배수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작년년부터 사내 시스템에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인 KCMS(KKPC Chemical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화학물질의 구입, 보관, 사용, 판매 등 유통의 모든 단계에 엄격한 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

치도록 하는 전자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한 원자재의 운송·하역·보관을 담당하는 금호티엔엘은 전 직원들이 환경안전경영의 기본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복장단정(Correctness) △청소(Cleanliness) △정리정돈(Cleaning) △점검확인(Checking) △전심전력(Concentration)의 ‘5C 운동’을 추진 중이다.

환경계 시스템도 강화 중이다. 석유화학 계열사들은 탄소배출 감축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내·외부의 평가 및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사업 계열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 에너지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 고기능성 합성고무인 EPDM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금호폴리켐은 국내 최초로 올해 여수사업장 EPDM 전 생산라인에 ‘MVR’ 설비를 도입했다. MVR은 제품 공정상에서 방출되는 폐열 등의 증기를 기계적으로 압축해 재압 스템으로 재사용하는 친환경 장치다. 김유진 기자 eugene@

I·SEOUL·U



“고민에 고민을 더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입니다”

서울의 미래를 묻다 도시재생으로 답하다

서울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도시재생으로 답합니다.
시민들의 바람대로 도시는 새로워지고
더불어 행복한 주거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으로
서울은 지금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
SH가 먼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

서울시민의 평생친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걸어서 10분 이내
각종편의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노후 불량 건축물
도시환경 정비



저이용 공공시설
토지활용사업



일자리 창출요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쥬스바 입은 티셔츠...젊은 世代에게 먹혔죠”

유통명장을 찾아서 신민정 롯데제과 IMC 담당 매니저

쥬스바 티셔츠, 마가렛 카디건, 빠다코코넛 신발...

듣기만 해도 맛있을 거 같은 패션이다. 식품업계가 최근 장수 브랜드의 올드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패션업계와 손잡고 다양한 패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제과도 패션업체 LF 질바이질스튜디오와 협업,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롯데제과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담당 신민정 매니저의 노력이 한 몫했다.

서울 영등포구 롯데제과 본사에서 만난 신 매니저는 마가렛·빠다코코넛 패션 제품의 출시 배경에 대해 “빠다코코넛과 마가렛은 출시한 지 30년이 돼 얼마, 아빠가 먹는 과자로 인식되고 있다”며 “기존 소비자들에겐 향수를 자극하고 주력 타깃인 젊은 세대에겐 컬래버(협업)를 통해 친근하게 다가가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컬래버 제품의 자체 판매 회전율은 약 70%다. 이 정도면 반응이 좋은 편이다. 마가렛 등에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의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인기라고 신 매니저는 자랑했다. 그는 “계속 반응이 좋으면 물량을 늘려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류뿐만 아니라 휴대폰케이스, 거울 등 소품도 컬래

롯데제과 장수과자, 패션업체와 컬래버 마가렛 카디건·빠다코코넛 신발 등 ‘부모님이 먹는 과자’ 고정관념 탈피해 군것질 수요 많은 여성 소비자 주 타깃 ‘플러스 알파’ 더해 제품의 가치 높였죠

버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신선한 이미지를 살리는 마케팅은 사실 쉽지 않다. 신 매니저는 오랜 마케팅 경력에 제품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롯데제과에서 근무는 5년 됐지만 이전에 외국계 광고대행사에서 일하며 전반적으로 소비자들과 가깝게 활동하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2015년 화제를 모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PPL 전략도 신 매니저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당시 롯데제과는 드라마 인기를 타고 첫 방송 기준으로 전후 각각 6주간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방송 후 실적이 방송 전에 비해 평균 12% 이상 신장했다. “정작 소비자들은 빠르게, 몽셀 같은 장수 메가 브랜드가 롯데제과에서 생산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아쉬웠다”는 그는 “브랜드가 많다 보니 비용이



▲서울 영등포구 롯데제과 본사에서 만난 롯데제과 IMC 담당 신민정 매니저가 질바이질스튜디오와 협업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질바이질스튜디오의 마가렛 패치 울혼방 니트

많이 들어 드라마 ‘응답하라’처럼 이번 패션 컬래버 제품도 저비용 고효율로 소비자들에게 많이 각인됐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내비쳤다.

신 매니저가 기대하는 주 소비자 타깃은 젊은 여성이다. 군것질 수요가 많은 여성들의 트렌드에 맞췄다. 신 매니저는 “LF측과 첫 미팅 당시 23명이 모였는데 전부 여자여서 친근한 분위기 속에 재밌는 마케팅 거리가 많이 나왔다”며 “최충, 칸쵸 등 캐릭터를 이용해 인형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 등 여성들의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재미있게 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여성 타깃이지만 남성 소비층에 대한 기대도 있다. 신 매니저는 “임원들이 아내, 딸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이번 제품을 맘에 들어 했다”며 “특히 김용수 대표가 빠다코코넛 옷을 보고 좋아해 아빠, 삼촌 등 남성 소비자에게도 선택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매니저는 “마케팅은 일상에서 먹고 소비하는 제품에 가치를 불어넣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먹거리가 다양해져 선택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선택폭에서 쉽게 제외된다”며 “제품이 존재감이 가지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선한 마케팅을 위해 “경험을 많이 하라”고 조언했다. 쇼핑, 여행 등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다. 실제로 신 매니저도 TV, 잡지 등 다양한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장소나 공연 등 문화 생활을 경험하며 ‘일상이 마케팅’인 생활을 하고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

기업 PR

“독! 끝내주게 신선해요”
고든 램지가 인정한 카스

유통과정 중 신선도 유지 ‘청량감’ 비결

미세린 스타 16개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가 오비맥주의 카스를 극찬해 화제다. 고든 램지는 TV 프로그램 ‘헬스 키친’, ‘램지의 키친 나이트메어’ 등을 운영하며 독설이라고 할 정도로 직설적인 화법의 까다로운 음식 평론가로 유명하다.

고든 램지는 최근 카스 TV 광고 모델로 발탁돼 광고를 촬영하는 자리에서 ‘Bloody(끝내주다)’를 연발하며 “삼겹살의 고소한 풍미와 치킨의 바삭거리는 식감이 카스의 특, 즉 맛과 잘 어울린다. 특히 맥주 맛은 ‘끝내주게 신선하다(Bloody fresh)’”고 평가했다.



오비맥주는 고든 램지가 인정한 카스의 신선함과 청량감의 비결로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 유지에 힘썼다. 카스 캔맥주는 생산한 지 한 달 미만, 병맥주는 2-3주가 되기 전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다 보니 신선도가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비맥주는 또 카스 특유의 상쾌함과 신선함을 배가시키는 ‘후레시캡(Fresh Cap)’ 기술을 자체 개발해 카스 병 제품에 적용했다. 기존 제품보다 밀봉력이 강해 맥주를 더욱 신선하게 보존하며 개봉 시 청량감 있는 소리로 카스의 신선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맥주인 카스는 맥주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선도 유지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한 맥주를 제공한다는 판매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카스만의 독보적 신선함과 한국적인 맛을 알리는 마케팅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SSION HILLS

하이난 미션 힐스 블록버스터 골프 180

나도 그 곳에 가고 싶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가 맞짱 뜬 그 곳
나도 가서 친구랑 원 없이 샷 대결 해보자!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한 블랙스톤은 있어라
이 곳이 진정한 블랙스톤 골판왕이다

세계 최초 · 최대 골프 상품 · 180홀 라운드
5성급 호텔룸 · 내 맘대로 골라 먹는 호텔 조·석식

매주 목요일(3박 5일) 일요일(4박 6일) 출발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이번엔 ‘수납용품’에 꽂혔다

스타필드 고양에 전문점 ‘라이프 컨테이너’ 개점 준비...‘자주’ 수납용품 매출 상승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납용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마트가 이번에는 수납용품 전문점 전략을 펼친다.

직접 운영하는 수납용품 전문점을 내놓는다면, 기존의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킬러들 역시 수납용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유통 채널별로 수납용품에 대한 시장 접근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점 전략이 적절할지 주목된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스타필드 고양 2층에 수납용품 전문점인 ‘라이프 컨테이너’를 10월 중 개점한다고 밝혔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는 수납 전문점’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카테고리 킬러다.

이마트 관계자는 “240평 규모로 공사 중”이라며 “좁은 인테리어 공간을 활용한 수납에 관심이 많은 1~2인 가구를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양에 첫 출점이며 아직 후속 출점 계획은 없다”며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킬러인 ‘자주(JAJU)’와 달리 그야말로 수납용품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2010년부터 반려동물 전문점인 ‘몰리스펫샵’을 시작으로 ‘PK마켓(신선식품)’ ‘매종터시아(홀퍼니싱)’ ‘썬텐스(자연주의 화장품)’ 등을 스타필드 하남 및 고양에 입점시키는 등 전문점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모바일 쇼핑 플랫폼



자주 레이스바스켓



자주 하임이불정리함

폼과의 경쟁환경에서 소비자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끌어내 차별화하려는 정용진 부회장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수납용품은 홈쇼핑 채널에서도 주 타깃인 주부를 대상으로 오후 4~5시경 방송하는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품목이다. 그럼에도 이마트는 제품 경험과 몰링(malling)의 일환으로 수납용품 전문점에 주력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킬러인 ‘자주’에서도 수납용품의 인기는 입증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자주에서 판매한 수납용품의 올해 1~8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불 정리함, 바구니 등 크고 작은 생활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납 제품이 인기다.

이상훈 자주 생활팀 기획MD는 “화장품 정리함, 바구니 등 정리 관련 제품 수요가 높은 편”이라며 “최근 다기능(multi-way) 제품 출시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수납용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옥션에 따르면 올 3월부터 8월까지 벽걸이 선반은 전년 동기 대비 187%, 공간 수납박스는 164% 매출이 각각 늘었다. 맹지환 옥션 가구팀장은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좁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납장이나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설계된 가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決戰의 날!...여기서 이기면 ‘넘버1’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임박하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만큼 그 결과 자체도 초미의 관심사지만 이번 수주전의 올해 남은 주요 재건축 수주전과 건설업계 정비사업 실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이날 오후 2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한다.

1973년 준공된 반포주공1단지는 현재 지상 5층 2090가구 규모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자이’와 ‘디에이지’ 프리미엄 브랜드를 각각 앞세워 5748가구의 매머드급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 단지의 사업권을 따내는 건설사가 강남권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 자리에 단숨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9조 원, 공사비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공권만 손에 넣는다면 앞으로 다칠 먹거리 절벽에 대비해 수주권까지 높일 수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이 단지의 시공권을 발판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까지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양측은 양보 없는 혈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열린 조합 주최 시공사 합동설명회에는 각 사

‘반포주공1’ 재건축 오늘 시공사 선정

현대·GS 올해 수주 실적 2·3위

공사비 2조6000억 대규모 사업

누가 되든 대우 제치고 1위 올라

결과파라 他사업장에도 큰 영향

CEO가 직접 나서 초호화 설계와 최고의 기술을 내세우며 수주전에 힘을 실었다. GS건설은 이곳 수주를 위해 강남 알짜 사업자인 서초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발을 빼며 공을 들여 왔다.

특히 이번 경쟁은 다른 주요 재건축 사업장과 건설사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실적에도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치게 됐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이달 초 기준 재개발·재건축 수주액은 각각 1조2708억 원, 1조2882억 원이다. 1위 대우건설에 이어 나란히 2, 3위를 차지하는 액수다. 매각 작업을 위해 상반기 부산과 과천 등을 중심으로 수주 볼륨을 키워 온 대우건설은 올 들어 줄곧 지켜온 1위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반포주공1단지의 시공권을 품지 못한 건설사는 재건축·재개발 수주권 확대를 위해 결국 다른 사업장에 올인할 가능성도 커진다. 현재 GS건설이 공식적으로 입찰제안서를 낸 주요 사업장은 공사비 1조 원 규모의 서초구 한신4지구와 4700억 원 규모의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곳 모두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최근 해외사업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더 집중해 왔다. 실제 GS건설의 해외 수주액은 2014년과 2015년 모두 5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지난해 20억 달러 절반 이상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1억78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번 사업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건설 역시 2014년 110억 달러의 해외 수주를 올린 이후 매년 34억 달러, 29억 달러, 17억 달러(이달 25일 기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두 곳 모두 내세우는 특징점이 달라 조합원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투쟁을 열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되든 강남권 내 위상이 달라져 향후 이 지역 재건축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강남 ‘로또 분양’ 이제 끝?

신반포 센트럴 자이·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는 기대 이하

내달 고덕 아르데온·e편한세상 송파 센트럴파크 “주변 매매가와 큰 차 없을 듯”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에서 일어난 ‘로또 청약’ 열풍이 한동안 시들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월 말이 지나며 ‘로또’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파격적으로 낮은 분양가의 단지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처음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왔던 단지는 GS건설이 7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신반포 센트럴 자이’였다. 이 단지는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원래 논의되던 3.3㎡당 평균 분양가보다 400만 원가량을 하향한 4250만 원의 평균 분양가를 책정했다. 인근에서 최근 1년 새 분양한 단지의 110%가 넘는 분양가를 책정할 시엔, 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막아 사실상 분양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낮아진 분양가로 3억~4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이 단지는 올해 수도권 최고 청약 평균 경쟁률인 168.08대 1을 기록했다.

‘로또 청약’ 열풍을 이어간 단지는 14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다. ‘신반포 센트럴 자이’와 유사하게 3.3㎡당 평균 분양가가 논의되던 수준에서 400만 원 정도 하향한 4160만 원으로 책정돼 이 단지 역시 ‘로또 청약’을 기대한

수요자가 몰려 평균 청약 경쟁률 40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제3의 ‘로또 청약’ 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현대산업개발의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의 분양부터는 상황이 미묘해졌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22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당초 논의되던 수준보다 200만 원 정도 하향했다고 하지만, 입지와 단지 규모를 고려하면 인근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앞선 두 단지의 열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평균 17.1대 1로 집계됐다. 이 단지의 한 분양 관계자는 “사실 인근 단지 최고 분양가를 고려해 원래 3200만 원 정도 가격에 논의되고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달 분양이 예정된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 아르데온’과 송파구 거여동의 ‘e편한세상 송파 센트럴파크’ 등의 분양도 ‘로또 청약’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지들이 HUG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양가를 책정할 시엔 인근 아파트 매매가를 크게 밑돌지 않을 것으로 점쳐져, 향후 또 다른 ‘로또 청약’ 단지는 한동안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용 기자 cogito@

배곧 상업시설의 중심, 그 옆에 생태공원·문화공간까지

호반건설, 시흥 배곧신도시 광장형 스트리트 몰 ‘아브뉴프랑 센트럴’ 분양

호반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광장형 스트리트몰 ‘시흥 배곧신도시 아브뉴프랑 센트럴’을 분양한다.

아브뉴프랑 센트럴은 시흥 배곧신도시 일반상업용지 총 6개 블록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다. 6개 블록 지상 1~3층은 총 7만3606㎡ 규모로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6개 블록 중 4개 블록 4~6층 섹션오피스(456실)와 2개 블록 4~6층 오피스텔(336실)도 차례로 분양할 예정이다.

아브뉴프랑 센트럴은 배곧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중에서도 최중심에 세워진다. 시흥배곧 호반 씨밋플레이스 C1, C2블록 사이에 들어서며 광장·스트리트형(길이 380m, 폭 30m)으로 설계됐다. 조정시설이 어우러진 보행로를 따라 상업시설이 들어서 집객 효과가 우수하고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상업시설 옆에는 대규모 생태공원인 배곧생명공원(23만2456㎡)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시흥시는 아브뉴프랑 센트럴과 공원, 광장 등을 연계해 일대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인 ‘여성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상업 수요도 탄탄하다. 상업 시설은 2만1500여



가구로 조성되는 배곧신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시흥배곧 호반 씨밋플레이스, 호반베르디움 1~3차 등에 둘러싸여 고정 수요가 받쳐 준다. 교통망도 갖춰져 외부 수요 유입이 기대된다.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지하철 수인선 달월역, 4호선 오이도역이 인접해 있다. 인근에는 월곶·판교선(예정), 소사·원시선(예정) 등 대형 교통 호재도 있다.

홍보관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78-1에, 견본 주택은 시흥시 배곧신도시 배곧생명공원 건너편(시흥시 서울대로 264번길 7)에 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추천 경매물건

용도	소재지	건물(㎡)	감정가(원)	최저입찰가(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계	사건번호
아파트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1 건물 101동 14층 1403호	84	285,000,000	228,000,000	80%	10월 24일	남부5	2016-667
아파트	서울 도봉구 방학동 716-1, -3, -16 방학동 ESA주상복합3단지 110동 9층 902호	85	400,000,000	320,000,000	80%	10월 30일	북부9	2017-102112
아파트	서울 구로구 개봉동 60-101 거성푸르미 101동 12층 1204호	133	340,000,000	272,000,000	80%	10월 24일	남부5	2016-102280
아파트	서울 노원구 중계동 578 현대그린즈중계동 주택조합2차 115동 1층 109호	85	360,000,000	288,000,000	80%	10월 30일	북부8	2017-4829
아파트	서울 성북구 길음동 635-168 신안파크 1동 905호	68	291,000,000	291,000,000	100%	10월 16일	북부6	2016-16641
아파트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682 휴먼시아 602동 1층 101호	135	490,000,000	343,000,000	70%	10월 16일	의정부11	2017-1540
아파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73 센티마루 109동 5층 502호	135	395,000,000	276,500,000	70%	10월 17일	고양3	2017-6913
아파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10-3 삼성 5동 2층 201호	55	212,000,000	148,400,000	70%	10월 19일	수원17	2017-4514
아파트	인천 계양구 작전동 580 외11 작전2-2차 현대 212동 14층 1404호	85	280,000,000	196,000,000	70%	10월 24일	인천3	2016-42444
아파트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 송도풍림아파트 406동 13층 1301호	85	380,000,000	266,000,000	70%	10월 24일	인천3	2012-36441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1 건물 = 101동 14층 1403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4년 5월 준공한 2개동 209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8층 건물 중 14층이다. 전용면적은 84.4㎡, 방 3개 욕실 2개에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단지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으며, 물건 인근으로 오류1동 주민센터, 오류도서관, 미소들병원, 오류시장, 온수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매봉초등학교, 오류초등학교, 개봉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최초 감정이 2억85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2억2800만 원이다. 입찰은 10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 2016-667.

◇서울 도봉구 방학동 716-1, -3, -16 방학동ESA주상복합3단지 = 110동 9층 9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6월 준공한 1개동 84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5층 건물 중 9층이다. 전용면적은 84.9㎡,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이 단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으며, 중랑천과 가까이 있다. 물건 인근으로 도봉구청, 도봉2동 주민센터, 도봉병원, 성모샘병원, 흙플러스, 빅마켓, 평화도봉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창도초등학교, 창동중학교, 서울문화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최초 감정이 4억 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3억2000만 원이다. 입찰은 10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 2017-102112.

Maxim

KANU ICE

입안 가득 진하게 퍼지는 카누의 품미. 카누 아이스와 함께라면 여름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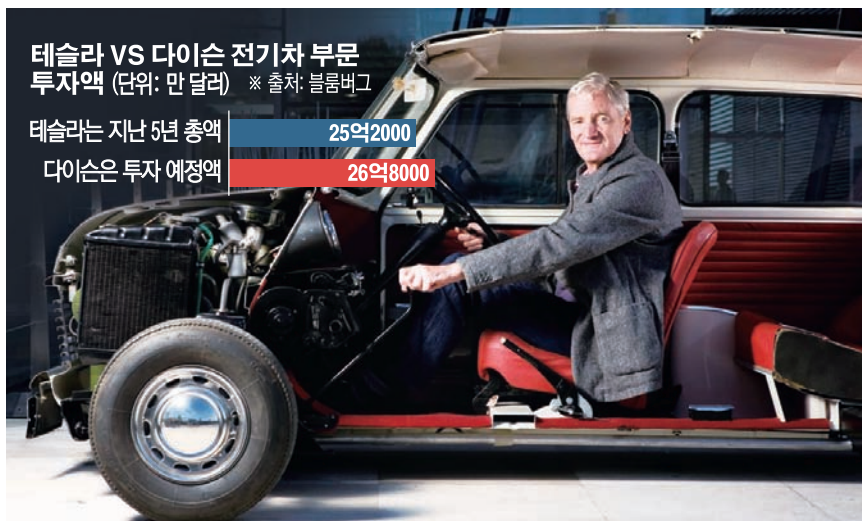
‘가전계 애플’ 다이슨, 전기차 만든다

창업자 다이슨, 직원들에 메일
“2020년까지 시장에 내놓을 것”
인력 400명 구축, 극비리 개발 중
무선청소기로 배터리 기술 확보
테슬라보다 많은 20억파운드 투입

‘가전계의 애플’로 불리는 영국 고급 가전업체 다이슨이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무선 진공청소기와 고급 헤어드라이어 등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다이슨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뜩이나 치열한 전기차 시장의 경쟁에 한 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다이슨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을 통해 현재 고급 전기차를 개발 중이며 2020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회사 측도 이날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전기차 개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차량이나 시제품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는 연간 생산 대수, 판매가격, 성능 등 전기차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사항도 언급하지 않았고, 생산공장 부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이슨 대표는 전기차 개발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 신기술 경쟁은 치열하고 우리는 우리 전기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설립자인 제임스 다이슨이 절반으로 자른 1961년형 오스틴미니 자동차를 타고 있다. 그는 2007년 5월 자신의 60번째 생일에 기술과 디자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받는 오스틴미니를 절반으로 잘라 자사 엔지니어들에게 보여줬다. 출처: 버

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사는 전기차 프로젝트에 향후 20억 파운드(약 3조 원·26억80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억 파운드는 차량 개발에, 나머지 10억 파운드는 배터리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는 테슬라가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에 쏟아부은 투자액(25억2000만 달러)보다 많은 것이다.

다이슨은 진공청소기 등 자사 히트제품을 내놓으면서 20년 가까이 전기 배터리 기술에 내공을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최근 2년간 본격적으로 전기차 개발을 준비하기 위해 극비리에 400명이나 되는 인력을 갖춘 개발팀을 구축했다.

개발팀에는 BMW와 애스턴마틴, 테

슬라 등 경쟁한 자동차 업체 출신들의 엔지니어가 대거 포진해 있다. 다이슨은 무선청소기 등 가전제품 개발을 통해 축적된 배터리와 모터 기술을 결합해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영국 BBC는 다이슨의 자동차 업체 진출 선언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전기차 시장이 포화상태인 데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 닛산, 르노, 현대자동차, 폴크스바겐 등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이미 전기차를 생산했으며 대다수 업체들이 사업의 무게중심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가전업체인 다이슨까지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이슨 대표는 경쟁력 부문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BBC에 “우리로 경쟁

이 치열한 시장인 것을 안다”면서도 “하지만 전기차 사업부의 성장속도는 빠르게 다이슨의 다른 사업부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이슨 대표는 1990년대부터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기술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가 당시 이러한 기술 개발에 관심이 없어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전기차는 급진적으로 기존 전기차와 다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 자사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가격이 싸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대중시장이 목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장 역시 다이슨이 기존 진공청소기에서 먼지봉투를 떼고, 선풍기에서 날개와 헤어드라이어의 소음을 없애며 ‘가전업계의 애플’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터라 ‘다이슨표 전기차’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의 자동차 부문 책임자 앤드루 버그바움은 “전기차를 개발해 2020년에 출시한다는 시간표는 매우 야심찬 것”이라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수년간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이슨 대표는 가전업계의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2007년 기사작위(Knight Bachelor)를 받았다. 이 때문에 그의 이름 영문명 앞에는 ‘경(Sir)’이라는칭호가 붙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中철도 ‘CRRC’ 게 섰거라! 獨 지멘스·佛 알스톰 합병

매출 180억달러… CRRC에 규모 못미치나 기술로 대항

세계 최대 철도차량 제조업체 중국중차(CRRC)에 맞서 2, 3위인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이 철도 사업을 통합해 유럽 챔피언을 탄생시켰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멘스는 철도차량 사업부인 지멘스모빌리티를 알스톰과 합병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새로 탄생하는 합작사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멘스는 이후 새 회사 지분 2%를 추가 취득해 출자 비율을 52%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권리를 쟁겼다. 양사의 합병으로 연매출 180억 달러(약 20조 4750억 원)에 이르는 새 회사가 탄생하게 됐다.

새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알스톰의 앙리 푸파르-라파르즈 CEO가 맡게 된다. 이는 자국의 아이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프랑스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알스톰 공장은 100년 넘게 프랑스 제조업의 상징이었다. 앞서 알스톰이 2015년 터빈 사업부를 제너럴일렉트릭(GE)에 매각했을 때도 프랑스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멘스와 알스톰의 합병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마크롱은 유럽연합(EU)이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경을 넘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지멘스의 조 케저 CEO는 “알스톰의 친구들과 함께 유럽인의 아이디어를 더욱 가꾸기 위해 일할 것”이라며 “우리는 철도산업에서 장기적으로 군림할 새 유



세계 2·3위 철도차량 제조업체 지멘스와 알스톰이 26일(현지시간) 철도사업 통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2010년 9월 18일(현지시간) 열린 이노트랜스 박람회에 알스톰의 고속철 열차(왼쪽)와 지멘스 열차가 나란히 전시돼 있다. 블룸버그

럽 챔피언을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지멘스가 합병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2014년 국영 철도업체인 중국남차와 중국북차를 합병해 CRRC라는 매머드 기업으로 탄생시켰다. 이후 CRRC는 세계 최대 철도시장인 중국의 지위와 정부의 지원을 발판삼아 지멘스와 알스톰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세계 시장에서 야금 야금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CRRC는 지난 1년간 영국과 체코 등에서 철도사업 수주에 성공했으며 최근 영국 런던과 북잉글랜드 도시를 잇는 고속철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멘스와 알스톰의 합병에도 그 규모는 여전히 CRRC에는 못 미친다. CRRC는 연매출 350억 달러를 자랑한다. 그러나 양사는 기술력으로 CRRC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멘스는 독일 고속철 차량 ICE, 알스톰은 프랑스 TGV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줌인아시아

말련 ‘호커센터’ 흔드는 ‘푸드트럭’

관광명소서 저녁식사… 주말 6000명 찾아

다양한 국가 토속음식 판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대표 변화기를 중심으로 최근 푸드트럭 스타일의 외식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특유의 야외 푸드코트, 이른바 ‘호커센터’ 외식 문화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닷게이아시아인리뷰가 보도했다.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 무렵 쿠알라룸푸르 대표 명소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인근 주차장에는 영업이 막 시작한 푸드트럭 주인들의 손길로 분주하다. 낮에 주차장이었던 이 공간은 저녁이 되면 다채로운 음식이 준비된 ‘타파크 어반 스트리트 다이닝(Tapak Urban Street Dining·이하 타파)’으로 변신해 행인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말레이시아 현지 음식은 물론 이탈리아에서부터 베트남, 한국, 일본, 멕시코 음식까지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판매해, 먹는 재미와 함께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푸드트럭에 대한 호응도 뜨겁다. 망고 음료를 파는 한 푸드트럭 사장은 “지역 주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푸드트럭을 찾는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평일에는 1000여 명, 주말에는 5000~6000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전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금요일에는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고, 주말에는 이보다 더 길게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불을 밝히고 영업을 한다.

이 지역에 푸드트럭 문화가 활성화한 것은 규제 완화가 계기가 됐다. 관광명소이다 보니 이 지역 당국이 부지 사용을 쉽게 내주지 않았고 허가 신청 절차도 복잡했다.

이곳에서 스파게티 푸드트럭을 운영 중인 30대 여성 사장은 지난해 친구 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대표 명소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인근 주차장에서 푸드트럭들이 영업하는 모습.

닛게이아시아인리뷰

명과 창업했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당국의 허가를 기다려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타파 영업업체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푸드트럭은 200여 개다. 하지만 이들 푸드트럭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파 관계자는 “매일 평균 28~30개의 푸드트럭이 영업을 시작한다”면서 “출점 장소는 매출에 의해 결정되고 매출이 하루 이틀만 저조해도 다른 푸드트럭으로 교체된다”고 했다. 출점 비용으로는 하루만 8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타파는 푸드트럭 주인들에게 경영 관련 워크숍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 관계자는 “타파의 라이브도 등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타파의 푸드트럭들이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다. 그러나 대부분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서 “푸드트럭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미래가 될 것이며 운영 측면에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멕시코 지진 1주일… 폐허된 삶터



규모 7.1의 강진이 멕시코를 강타한 지 1주일째인 26일(현지시간),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사람들이 모여 한때는 삶의 터전이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된 의류공장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19일 일어난 강진 사망자 32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멕시코시티에서 희생됐다. 당국은 즉시 모를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한 여전히 수색 작업을 하고 있으나 붕괴한 건물이 도시 곳곳을 뒤덮고 있어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멕시코시티/AP연합뉴스

‘脫석유’ 속도내는 사우디, 여성 운전 내년 6월 허용

“여성 활동 경제성장 도움”… 남성 후견인 제도 약화

풍기문란을 이유로 여성 운전을 금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 6월부터 여성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사우디가 여성 억압의 상징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날 사우디 외교부는 트위터에 여성 운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여성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다만 사우디 내무부는 여성이 택시운전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2세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로 올라서면서 여성 운전 해금에 큰 역할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살만 왕자는 작년에 사우디의 장기 경제성장 비전인 ‘비전 2030’을 제시하며 탈(脫)석유 정책을 선도했다. 살만 왕자는 원유 수출에 국가 경제를 크게 기대는 사우디가 저유가 시대를 맞아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여성의 경제 활동과 교육 기회를 늘려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전 2030에 담긴 이러한 내용은 이번 여성 운전 허용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사우디의 여성은 운전은 물론 외국여행을 가려면 남성 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남성 후견인 제도’라고 불리는 법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여성은 외국여행과 운전을 포함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도 남성 보호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일하는 여성들은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 6월부터 여성 운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리아드/AP연합뉴스

신의 차를 운전해 출근할 수 없어 월급 대부분을 운전사 보수로 지출하거나 남성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살만 왕자가 지속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면서 남성 후견인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은 완화됐다.

사우디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통치되는 군주국이다. 샤리아를 따르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법

을 지키는 국가인 사우디는 그동안 사우디 당국과 이슬람 원로 성직자 간에 여성 운전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성직자들은 여성이 운전하면 풍기문란으로 사우디 사회에서 가족이 붕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사우디의 알알리드 빈 탈랄 알사우드 왕자는 작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통할 때가 왔고, 이제 이 문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우디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 마날 알 사리프는 이날 사우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리프는 여성 운전 금지 규정에 항의하고자 2011년 운전을 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당시 이 영상이 전 세계적 화제를 불러모으자 사리프는 체포당했고, 이후 해당 경험을 책으로 썼다.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그는 “사우디 여성 운전자의 승리는 축하하지만, 성평등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MS 전현직 CEO 입모은 경영전략은 “공감”

자서전 출간 앞둔 나델라, 게이츠와 동반 인터뷰
고객 요구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기업 혁신으로 연결
“뇌성마비 앓는 큰 아들, 삶과 일에 대한 관점 바뀌줘”

사티아 나델라(50) 현(現)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와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61). 이들에게는 MS라는 거대 IT 공룡기업의 전·현직 수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듣는 경우는 드물었다. 게이츠가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자선사업가로 변신한 이후 회사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왔기 때문. 그러나 나델라 CEO의 새 자서전 ‘히트 리프래시(Hit Refresh·새로 고침을 눌러라)’ 출간을 앞두고 두 거물이 이례적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 함께 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델라는 MS가 부진의 늪에 빠져 있던 2014년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전임자인 스티브 발머 CEO가 뒤늦게 모바일 사업에 베통한다면서 노키아의 휴대 폰 사업부를 72억 달러(약 8조1784억 원)에 인수한 게 계기였다. 발머의 후임자로 나선 나델라는 과감히 휴대폰 사업을 정리하고 대신 인공지능(AI)과 상업

용 클라우드컴퓨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그 결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약진에 힘입어 MS는 성장세 회복에 성공했다.

나델라는 26일 출간된 자서전에서 그가 이끌었던 회사의 변화와 뒷어라운드 전략, IT 기술발전의 미래, 자신의 개인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게이츠는 이 책의 서문을 직접 작성해 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나델라의 인간성과 실용주의적 경영 노하우 등을 높이 칭찬하기도 했다.

게이츠는 “IT 산업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CEO에 기대하는 것들도 그만큼 성숙해졌다”면서 “사티아는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에 타고난 능력을 갖췄으며 기본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일러준다”고 말했다.

게이츠와 나델라는 이날 인터뷰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경영 덕목으로 꼽았다. 나델라는 “모든 사업이 처음



사티아 나델라(왼쪽)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와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워싱턴주 레드몬드 MS 본사 내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웃고 있다. 사진제공 WJS

보는 사람을 만나고, 명확하지 않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곧 혁신과도 연결된다”면서 “공감과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혁신을 이뤄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인도 공무원인 아버지와 산스크리트어 학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나델라는 21살이 되던 해인 1988년 석사 학위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후 1992년 MS에 입사, 차근차근 승진 코스

를 밟아나갔다. 현재 세 아이의 아버지인 나델라에게 21살 된 큰아들은 아픈 손가락이다. 그는 뇌성마비로 태어난 큰 아들이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었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경영철학에서부터 기술 진보의 위험성,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이슈가 된 이민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4년만에 주니어사원 ‘온리원캠프’ 파격 등장한 이재현 회장 “사람이 CJ 미래...2030 월드 베스트 주역 되길”

원색 티셔츠·짚어진 청바지 입어
“실수해도 젊은이 특권” 격려



26일 이재현 회장은 제주도 나인브릿지에서 열린 주니어 사원 대상 교육행사인 CJ 온리원캠프에 참석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 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4년 만에 ‘온리원캠프’에 참석해 “사람이 CJ의 미래”라며 인재 제일의 경영철학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26일 저녁 제주도 나인브릿지에서 열린 주니어 사원 대상 교육행사인 CJ 온리원캠프에서 “여러분이 입사할 때 보지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어 반갑다”면서 “현업에서 각자 업무에 적응하며 CJ 인재로 잘 자라주고 있다고 들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리원캠프는 CJ그룹 공채 2~3년 차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결합(Re-Union) 프로그램으로 입사 이후 각자 roles을 맡아온 동기들이 3박4일 일정을 함께하며 재충전 및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다.

이 회장은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왔으나 2013년 4월 이후로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는 2015년 CJ 그룹공채 입사자 750명을 주인공으로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CJ(주) 이재욱 부회장,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등 전 계열사 CEO가 함께했다.

이날 사원들과 똑같은 디자인의 흰색 티셔츠와 검정 점퍼 차림으로 등장한 이 회장은 “CJ는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발전하고, 진화해 갈 것이고 이를 위해 많은 인재와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며 “지난 20년간 일으켜 온 사업을 완성하고 저의 꿈인 ‘2030 월드 베스트 CJ’를 이루는 데 있어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때는 여러분이 주요 포스트에서 임원, 부장 같은 핵심인력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사기를 북돋웠다.

이 회장은 또 “조금 과해도, 실수해도 괜찮은 게 젊은이의 특권 아니겠느냐”며 “모두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좋은 인재가 즐겁게 일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려면 유연하고 소통이 잘 되는 조직문화가 필수”라며 CEO들에게 이 같은 조직문화 형성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남호 기자 sprdan@



사진제공 종근당

종근당, 해외 장학생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르완다 등 3개국에서 선발된 해외 장학생 총 52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국립대학의 저소득가정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19명을 선발해 이들에게 장학증서와 등록금 전담을 마쳤다. 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종근당고촌재단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앞서 21일과 22일에는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과 호찌민 의학대학과 장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글로벌 리더 장학생으로 선발돼 성균관대와 가천대, 영남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베트남 학생 3명에게도 등록금을 지원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故) 고촌 이종근 회장의 사재를 바탕으로 1973년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2013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저개발국가의 인재를 지원하는 해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 소외계층에 1억 쌀 기부

안유수(사진) 에이스침대 회장이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에 쌀을 기증했다.

에이스침대는 재단법인 에이스침압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안유수 회장이 경기 성남시와 이천시 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약 1억 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회장이 기증한 쌀은 총 5873가구의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19년간 매년 설과 추석마다 쌀을 기부해온 안 회장은 24년 동안 불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20년 M&A 전문가’ 김동준 큐캐피탈 대표 “하반기 3000억 펀드 조성...바이오에 투자”

블록체인·가상화폐·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도 관심
10년내 운영자산 10조 목표

회계사를 거쳐 20여 년간 인수·합병(M&A) 전문가로 살아온 김동준(사진) 대표가 큐캐피탈에 몸을 담았을 때는 3년 3개월 전. 당시 2~3개에 불과하던 큐그룹의 계열사는 현재 25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김 대표의 손을 거치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다. 이제 김 대표의 관심은 바이오와 블록체인으로 향하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약 1000억 원을 바이오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00억 원 펀드 조성은 그가 부인 후 최초로 진행하는 대규모 자금 조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바이오 사업에 대한 김 대표의 자신감은 스마젠을 통한 경험 축적에서 비롯됐다. 앞서 800억 원을 투자해 100% 지분을 인수한 스마젠은 최근 에이즈백신 임상 1상에 성공했다. 그는 “에이즈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한 김철웅 박사와 스마젠 대표인 이상균 박사를 회사의 고문으로 두고 있다”면서 “국내 바이오 분야에서 상당한 네트워크를 확보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큐캐피탈의 전체 운용자산(AUM)은 1조2000억 원 규모다. SK증권 인수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약 8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했다. 또 전일 대한광통신의 주식 900만 주를 추가 매도하면서 전량 매각했다. 회사 성과가 좋아지면서 큐캐피탈의 엑시트 자금도 충분히 확보됐다. 대경기계 역시 이란 시간 내 매각을 완료한 전장이다.



사진제공 큐캐피탈

김 대표는 향후 블록체인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화폐와 사물인터넷이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삼성증권과 처음으로 공동 제휴해 조사 보고서와 업체 동향을 살펴 투자대상 업체를 소개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의 목표는 한국 사모펀드 투자업계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다. 10년 내 최소 운영자산 목표는 10조 원. 그는 “10조 원의 절반 정도를 바이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한국 바이오 사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한국여성 인물사전

〈206〉 권기옥(權基玉)

무장 독립운동 펼친 국내 최초의 여비행사

권기옥(權基玉)은 1901년 3월 1일 평남 중화군에서 4녀 1남 중 둘째딸로 태어났다. 또 딸이 태어난 것에 실망한 아버지는 ‘어서 가라’는 심정으로 이름을 ‘갈네’라고 지었다. 한 살 아래 남동생이 소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아버지는 권기옥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외가의 영향으로 권기옥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목사의 도움으로 장대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송현여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에 송의여학교 3학년에 편입했다. 학교 내의 비밀결사체인 송죽결사대(松竹決死隊)에 가입하여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구류를 살거나 투옥생활을 했다.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모으거나 독립신문을 배포하고 무기를 전하기도 하는 등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10월 평양 대한애국부인회 회원들이 체포됐을 때 피신하여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였다. 권기옥은 1917년 9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인 비행사 아트 스미스(Art Smith)의 곡예비행을 보고 비행사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망명 후에는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안기겠다는 목표로 비행사가 되고자 했다.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항저우(杭州)의 흥다오(弘道)여학교에서 중국어와 영어를 공부하고 1923년 6월 상하이로 돌아와 비행학교 입학에 필요한 운전면허를 뒀다.

여지라는 이유로 난위안(南苑) 및 바오딩(保定)의 항공학교 입학을 거절당하자 직접 윈난성(雲南省)을 찾



아가 성장(省長)의 허락편지를 얻어내어 원난육군항공학교 1기생 중 유일한 여학생으로 입학했다.

1925년 졸업 후에는 중국 군벌 쑹위상(馮玉祥)의 항공대 및 국민혁명군 동로군의 항공대에 입대하였다. 서알보(徐曰甫), 최용덕(崔用德) 등 중국군 항공대 소속으로 활동하던 조선인 비행사들과 교류하면서 항일운동을 모색했다. 1932년 1월 일

본군이 상하이를 침략했을 때에는 정찰기를 몰고 출격하여 일본군에게 기총소사를 퍼붓기도 했다.

시인 이상화의 형인 독립운동가 이상정(李相定)과 1926년 10월 6일 내몽고에서 비행사 정복을 입고 결혼하였다. 항공대 활동에 몰두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다. 1938년 9월에는 이상정과 함께 중국 육군참모학교의 교수로 발령받아 중정(重慶)으로 왔다. 1943년에는 임시정부 산하 ‘공군설계위원회’에 참여하고 1945년에 한국광복군 비행대 편성을 준비하다 해방을 맞았다.

1947년 이상정이 홀로 한국의 본가에 갔다가 뇌일혈로 사망한 뒤 남편에게 본처와 아이들이 있는 것을 알았다. 1949년 귀국한 뒤에는 공군 창설에 참여하는 한편 역사를 기록하는 ‘한국연감’을 발간하고 장학사업을 하였다. ‘권기옥장학금’의 우선순위는 항공인재와 여학생, 역사의식이 올곧은 젊은이었다. 권기옥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1988년 4월 19일 별세했다.

병적에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 박물관 건립추진협의회

김정환 시인 ‘만해문학상’ ‘내 몸에 내려...’ 수상작에

김정환(63·사진) 시인이 제32회 만해문학상 본상을 수상했다. 만해문학상을 주관하는 출판사 창비는 김정환 시인의 시집 ‘내 몸에 내려앉은 지명(地名)’이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황석영 작가와 이재의·전용호 씨가 함께

께 집필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특별상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본상 수상작에는 상금 3000만 원, 특별상에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비가 운영하는 다른 문학상들과 함께 열린다.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장 이귀복
- ◆교통노동부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김대환 △국장급 파견 △경제사회 발전노사정위원회 시민석
- ◆특허청 △과장급 △특허심판원 심판관 정지우
- ◆인하대 △교학부총장 이현우 △대학원장 구윤모 △대의협력처장 남창희 △산학협력단장 이상규 △법학전문대학원장 원해옥 △의학전문대학원장 박소라 △경영대학원장 임병훈 △자연과학대학장 한경남 △경영대학장 권오경 △사범대학장 박덕유 △사회과학대학장 정영태
- ◆신아일보 △논설위원 강동원
- ◆EBS △부서장 승진 △학교교육본부장 추득담 △정책기획본부장 김동관 △경영자원센터장 전용수 △영상아트센터장 송대갑 △강사실장 이상철 △대의협력국장 류성우 △미래교육연구소장 박찬모 △부서장 전보 △방송제작본부장 최해경 △융합기술본부장 이호준 △콘텐츠사업본부장 이승훈 △산악시정 자실장 김봉렬 △부장 승진 △디지털혁신팀장 홍장배 △부장 전보 △경영혁신팀장 신상수

부음

- ▲방성철(MBC 기획본부 매체전략국 국장급)씨 부친상 = 2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031-900-0114
- ▲김민석(청주시 자원정책과장)씨 장인상 = 26일, 청주의료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43-279-0151
- ▲강정원씨 별세, 김영균(콜마파마 상임이사)·상균(삼성전자 범무실장 사장)·시균(동해동인병원 정신의학 과장)씨 모친상, 김선우(경북 이비인후과 원장)·조규근(삼성그린피아 대표)·이철희(전 조달청 대구지청장)·이종인씨 장모상 =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07
- ▲강순조씨 별세, 유재신(전 전북도 교육감)씨 부친상, 박성일(전북 완주군수)씨 장모상 = 26일, 전북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63-250-2441
- ▲박두엽씨 별세, 윤갑(전 전북도 의원), 재영(수자원공사)씨 부친상 = 26일, 전북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63-250-2450

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 광 득 법무법인 태평양 가업승계·가사소송팀 변호사



최종찬 칼럼

국가경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아파트 後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까

그러면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후분양제도는 유리한 것인가?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건설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건설회사는 토지 구입자금 정도만 투입하고 그 이후 공사비는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소비자가 부담해 건설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안 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미 분양하였으므로(일부 미분양이 있다 하더라도) 완공 후 판매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에게도 큰 혜택이 있다.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선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완공되는 2-3년 후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선분양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소비자가 이익을 보았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아파트 후분양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는 아파트 구입자금을 미리 내지

않아도 되고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구입하므로 하자 보수 등의 문제도 없다. 또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 또한 많다. 건설회사는 막대한 토지구입비와 건설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을 융자로 조달해야 하므로 이자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해 건설회사의 부채비율은 높아져 기업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완공 후 분양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건설비용이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을 상회하는데, 미분양이 크게 발생하면 건설회사는 도산(倒産) 지경에 이를 것이다. 단지가 클수록 리스크가 커지므로 요즘은 인기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결국 아파트 건설의 분양 리스크가 현재의 선분양제도보다 커지게 되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다양한 편의시

설이 가능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어려워지는 것은 소비자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분양가가 비싸진다. 아울러 건설회사가 조달한 자금으로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하므로 시세대로 분양할 것이다. 특별히 저렴하게 분양할 이유가 없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의 기존 아파트를 시세로 사는 것과 같다. 후분양제를 하면서 아파트를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후분양은 이미 실시 중이다. 이미 실시 중인 후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좋은 제도이다. 기존 아파트보다 선분양 아파트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분양 아파트를 사고, 선분양에 불만인 소비자는 후분양인 기존 아파트를 사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년(한정)후견인의 株主權 행사

우리 민법은 치매 등의 문제로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심한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성년후견'을 하게 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것은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호 씨였다. 신격호 회장은 성년후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법원은 신격호 회장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한정후견'은 필요하다'고 보고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산'을 선임했다.

최근 신격호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과 관련해 새로운 뉴스들이 보도됐다.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인이 신격호 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구로 법원에 한 것이다. 아직도 신격호 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롯데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진행 중이므로 한정후견인이 신격호 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민감한 문제이다.

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최근 다른 사안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삼화제분사의 창업주 박만송 회장은 2012년 뇌출혈로 쓰러졌다. 박만송 회장의 아들 A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삼화제분 주식을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만송 회장의 배우자인 B는 아들 A가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아들 A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작년 11월께 법원은 박만송 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 C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성년후견인은 주주총회를 열어 아들 A를 대표에서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들 A는 성년후견인이 회사 경영까지 간섭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회사의 대표 등을 변경하는 것은 피후견인(박만송 회장)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아들 A가 어머니 B와의 소송에서 패소했고, 아들 A가 박만송 회장 명의의 대출계약 등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성년후견인이 주주총회에서 대표 변경을 위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선례를 봤을 때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경우도 법원은 한정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경영에 관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성년후견인이 적절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영전문가를 기존 성년후견인과 함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큰 기업을 일군 기업가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주주권을 성년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적절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감독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뉴스에서 '증거인멸'만큼 자주 듣는 말도 드문 것 같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뉴스가 바로 그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범죄 사실을 감추려 드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전직 대통령들과 국정원장 등 한 시대를 풍미하며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으니 사회 전체에 거짓 증언과 진실 왜곡의 못된 풍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증거인멸의 인멸은 '湮滅'이라고 쓴다. '湮'은 '잠길 인, 물을 안'이라고 훈독하는 글자인데, 물 아래로 잠기게 하거나 땅에 묻어 버림으로써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滅'은 '없앨 멸, 멸망할 말'이라고 훈독하는 글자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



증거인멸(證據湮滅)

지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湮滅은 드러나지 않도록 몰속에 처넣거나 땅에 묻어버리거나 태우거나 녹여서 영원히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다. 무서운 단어이다. 진실이 그렇게 영원히 잠기고, 묻히고, 소각되거나 용해되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는 거짓만 남게 된다.

진실이 사라진 세상엔 억울한 사람이 넘치게 되고, 진실이 사라진 그 자리를 차지한 거짓은 끊임없이 거짓을 재생산하여 세상을 온통 불신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온라인 와글와글



高齡 인구, 처음으로 幼年 인구 추월 "노인 기준이 비현실적"

저출산과 늘어난 기대수명 등으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초월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70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에 해당한다. 그중 70-79세 비중이 46.0%로 가장 컸다. 성별로는 여성이 57.5%로 남성보다 15%포인트 많았다.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일컫는 노령화 지수는 올해 기준으로 104.8이다.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크면 유소년 인구

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다는 것.

15-64세인 생산 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 역시 올해 18.8명으로 나타났다. 2060년이면 노년부양비는 82.6명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네티즌은 "노후 준비 철저히 해야겠다", "젊은 층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노인 기준 높여야", "교과서에서 보던 문제가 현실이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진희 기자 jh6945@

카드로 보는 세상



추석 차례상 준비,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아시죠? 현재 서울 시내 126개 전통시장에서는 제수용품 할인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따뜻한 시장의 인심을 느끼게 해 준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는 추석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민속놀이와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들의 행사정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pm3de3>

www.119medical.co.kr

즐거워 치과
Dental Clinic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낳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T.032-514-00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부평동, 대한빌딩 7,8층)

사장님 성공지원 프로모션

사장님의 성공을 기원하니까
178만원 할인으로 지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통신 파트너 **SK브로드밴드**에서
사업장의 필수통신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이용해보세요

대상: 개인사업자 신규 고객

혜택: 매장 주요 통신비 3년간 최대 178만원 할인(부가세 포함)

- 인터넷+인터넷전화+IPTV(Btv)+Giga WiFi+CCTV(Cloud CAM)+전국대표번호 3년약정 결합할인 기준

*인터넷은 광랜, Btv는 베이직 이상, Cloud CAM과 전국대표번호(일반등급)는 최소 2회선 기준임

•SK텔레콤 휴대폰, SK매직 렌탈서비스(정수기, 공기청정기)
NSOK 보안서비스와 결합 시 제휴사 혜택 추가 제공

*자세한 할인 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예약신청 하시는 고객님의게는

서비스 가능 시점에 동일한 프로모션 혜택을 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와 넓은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SK브로드밴드가 되겠습니다

사장님 성공지원 가입전담센터 ☎ 1670-2000

www.skbbroadband.com



20년간 받은 사랑 특별한 선물로 마음을 전합니다

SK브로드밴드의 스무살 생일이
당신에게 더 특별한 날이 되도록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SK브로드밴드 20th Anniversary 스무살의 '감사'이벤트

(기간: 9월 22일~10월 31일 / 당첨자 발표: 11월 15일)



2,220명의 신규 고객께
드립니다

대상: SK브로드밴드 인터넷+IPTV 신규 가입고객 중
2,220명 추첨

혜택: Giga인터넷+Btv 프라이م 10년 무료이용권 (1명)
삼성전자 65" UHD TV (19명)
NUGU mini (200명)
B포인트 5만원 (2,000명)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Btv 이용고객께
드립니다

1. Giga인터넷+Btv 프라이م 10년 무료이용권 제공
-VOD 1건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추첨
2. 100% 포인트백 제공
-이벤트 메뉴 내 영화 구매 고객 대상 (~10/9)
-이벤트 메뉴 내 VOD 선물하기 구매 고객 대상
-자상파 월정액 가입 고객 대상 (첫달 요금)
3. 프리미어, 지상파 월정액 등 평생 이용권 제공
-월정액 신규 고객 20명, 기존 월정액 고객 20명 추첨



oksusu 이용고객께
드립니다

1. 20% oksusu 포인트백 제공
-oksusu 콘텐츠를 구매한 모든 고객
2. oksusu 20만 포인트 제공
-영화/방송 TOP 20 타이틀을 가장 많이 시청한
고객 20명 추첨



PC버전 출시! www.oksusu.com
이제 oksusu를 PC에서도 즐기세요!



공유 팬 사인회에
초대합니다

대상: 신규 가입 이벤트 참가자 중 50명 추첨
혜택: 공유 팬 사인회 초청/팬 미팅
일시: 11월 18일
*공유 팬 사인회 당첨자 개인별 통보 예정

가입문의 ☎ 106 | www.skbbroadband.com

*자세한 내용은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www.skbbroadband.com) 20주년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상기 이벤트는 이벤트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응모되며 랜덤 추첨 방식을 통해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戰時 대응 계획 있다

북한 EMP 공격에 내 ‘코인’ 安全할까

〈전자기펄스〉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직후 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된 바 있다. 북한이 전자기펄스(EMP-Electro Magnetic Pulse) 공격으로 국내 기업들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겠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맡겨둔 고객들의 자산이 보호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가 늘고 있다.

◇대형 금융사 수준의 재난복구 시스템 = 우리나라가 EMP 공격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발전시설이 무력화된다. 전기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들의 서버 유지에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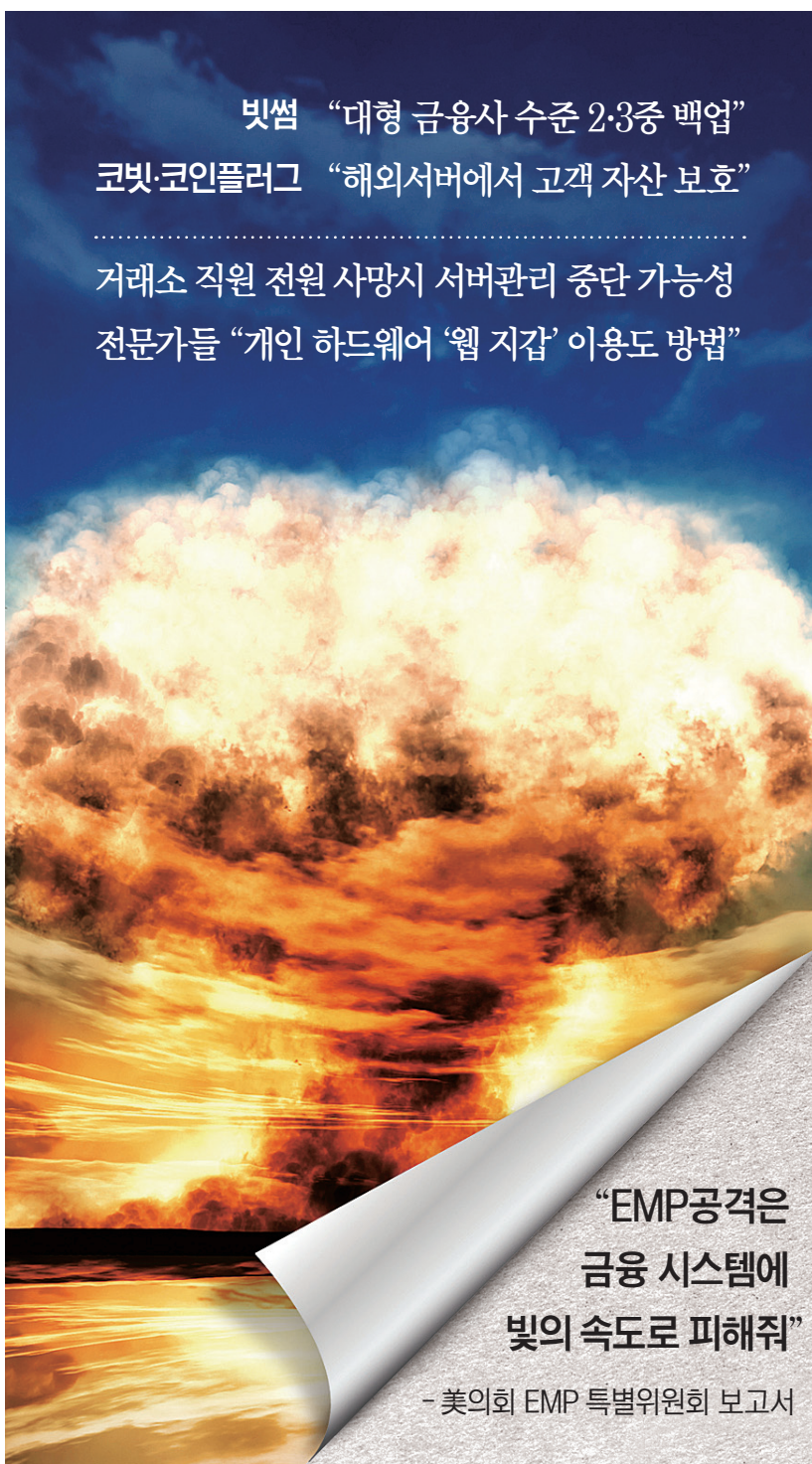
국내 금융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의회 EMP특별위원회는 2008년 보고서에서 “EMP 공격은 빛의 속도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금융 시스템에 피해를 줄 것이며, 모든 백업 데이터가 전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파괴되는 등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선 북한의 핵도발이 있을 때마다 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부분 거래소에 자산을 보관한다는 점에서 EMP공격의 영향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다. 일일 거래량이 세계 최대 규모로 올라선 빗썸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들이 구축한 재난 대비 서버 보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중·삼중의 백업으로 고객 자산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서버 둔 거래소들 “전쟁 고떡었다” = 다른 거래소인 코빗과 코인플러그(CPDAX)는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두 거래소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해 전시에 서버가 파괴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은행과의 협력을 위



한 몇몇 서버만 국내에 두고,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하는 대부분의 서버는 해외에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의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거래소 직원이 자산을 횡령하는 것도 대비하고 있다. 빗썸과 코빗, CPDAX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대표나 임원 단독으로 고객 자산을 관리하지 않고, 핵심 직원의 합의를 통해 자산 관리를 허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 직원들의 해외출장 업무가 있는 경우에도 항공기를 나눠 타 위험을 줄이는 노력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골드월렛(오프라인 보관소)을 이용해 보관한 자산은 EMP 공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고 거래소들은 강조했다.

◇ 전시 대비 계획 수립 필요성 늘어 = 빗썸, 코빗, CPDAX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EMP 공격과 전쟁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다고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쟁 발발 시 거래소 직원이 모두 사망했을 때, 거래소 서버 관리가 중단된다. 다중 백업이나 해외 서버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이 적지 않은 만큼 각 거래소들이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논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가 만들어지면 공동으로 최적화된 메뉴얼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상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하드웨어 지갑도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 웹지갑에 넣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시에 소유자가 살아남 있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되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는 “고객들이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제2 비트코인 꿈꾼다

국내 거래 가상화폐 차별화 전략

전 세계 1000여 종이 넘는 가상화폐 중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서 사고팔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클래식, 리플, 모넨로, 퀀텀, 비트코인캐시 등 9종이다. 이미 잘 알려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대체 코인들은 익명성, 거래 속도 등 차별화된 전략을 앞세워 ‘제2의 비트코인’을 꿈꾸고 있다.

△대시(DASH)=‘다크코인’으로 익명성 보장

대시는 ‘익명성’을 내세운 코인이다. 당초 ‘다크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불법 사이트들과 연관됐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름을 바꿨다. 코인 명칭을 바꾸면서 익명거래, 실시간 이제 확인 기능 등을 추가했다. 다수의 거래를 묶어 ‘마스터노드’를 통해 섞은 뒤 거래 내역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한다.

△라이트코인(LTC)=비트코인 거래속도의 4배

라이트코인은 2011년 10월 구글 출신 찰리 리가 개발했다.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개선해 빠른 전송 속도 등을 갖췄다. 블록 생성 시간이 비트코인보다 짧아 거래속도(평균 2분 30초)가 4배가량 빠르다. 더불어 최종 발행량도 8499만 개로 비트코인(2100만개)의 4배 수준이다.

△이더리움클래식(ETC)=해킹 전 상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난해 발생한 이더리움 해킹 사건 이후 사고 발생 이전 상태로 복구된 버전의 코인이다. 도난된 이더리움이 포함돼 있다. 이더리움과 달리 최대 발행량이 제한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리플(XRP)=국제 결제 서비스에 강점

리플코인은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결제 네트워크 ‘리플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내부 화폐다. 리플코인을 통해 각 나라의 화폐를 수초 내에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P2P 개념을 완전 거래에 적용해 비용과 시간을 줄여줘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넨로(XMR)=코인 송·수신자 파악 불가능

모넨로는 모든 거래에서 보낸 사람, 금액, 수신자 등의 정보를 숨겨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화폐다. 익명성을 완벽히 보장해 거래내역 추적을 통한 거래경로, 주소, 수량 파악이 불가능하다.

△퀀텀(QTUM)=비트코인·이더리움 장점 결합

퀀텀은 퀀텀 재단에서 개발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적 장점을 결합한 블록체이다. 퀀텀코인은 이 블록체인에서 구동되는 스카트 컨트랙트, 분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기본 화폐다.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분비율에 따라 블록 생성 권한을 갖고, 블록을 생성하면 보상으로 퀀텀 코인을 받는다.

△비트코인캐시(BCH)=올해 8월 분할

비트코인캐시는 올해 8월 1일 하드포크 이후 비트코인에서 분화된 코인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비트코인 블록 크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거래 처리 속도를 개선했다. 채굴자가 2~8MB로 블록 크기를 정할 수 있다. 분화 이후 불안정한 가격 변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둘로 나뉜 비트코인, 11월 추가분할說 솔솔

블룸버그서 비트코인닷컴 CEO 주장
“업그레이드 합의 안 되면 쪼개질 것”

두 가지 버전으로 갈라선 비트코인이 11월에 한 번 더 쪼개질 수 있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닷컴 CEO인 로저 버는 올해 비트코인의 두 번째 분할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매체에 따르면 로저 버는 추가 분할을 예

상하면서 그의 자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캐시로 옮기고 있다. 그는 분할로 더 많은 ‘코인’이 생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로저 버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 사이에 또 다른 분할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내가 비트코인캐시에 대해 매각할 수 있는 더 많은 코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트코인은 거래 수수료 문제, 거래 병목현상 등의 해결과 기술적 이견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로 분할됐다. 올 11월에는 비트코인 용량을 2MB로 늘리는 세그윗2x(SegWit2X)가 예정돼 있다.

로저 버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시기에 코인 분할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예상했다.

특히 이 매체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 중 최소 92% 이상이 세그윗2x에 대해 합의해야 하지만 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주요 채굴 풀 중 하나인 F2pool 공동 소유자인 왕 천은 “분할이 100%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봉평촌 선물세트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세요.
우리 땅에서 정성을 다해 재배한 우리 메밀에 건강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추석

메밀세트선물전

봉평촌 메밀선물세트(小)_청엽(靑葉)세트

봉평촌 메밀선물세트(中)_백화(白花)세트

봉평촌 메밀선물세트(大)_흑실(黑實)세트

제품사이즈: 485mm × 315mm × 50mm
제품구성: 메밀부침가루 800g, 메밀미숫가루 900g, 봉평촌메밀국수2호 850g

제품사이즈: 470mm × 315mm × 74mm
제품구성: 메밀부침가루 800g, 찰수수부침가루 450g, 메밀소바 600g
메밀차 25개입 × 3개, 봉평촌메밀국수2호 850g,

제품사이즈: 661mm × 326mm × 83mm
제품구성: 메밀부침가루 800g, 찰수수부침가루 800g, 메밀가루 800g,
메밀쌀 600g, 메밀차 25개입 × 3개, 봉평촌메밀국수2호 850g × 2개

[주]봉평농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진동길 18-10 Tel. 031. 323. 0052 / 033. 333. 8942 Fax. 031. 323. 0473 www.bongpyung.com

펀드 투자시 長期는 A클래스, 短期는 C클래스 유리

이주의 금융꿀팁

40세 직장인 김모 씨는 5년 전에 직장 동료某甲 같은 증권사에서 같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최근에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 본인 펀드의 수익률이某甲보다 3.5%나 낮다는 것을 알았다. 알고보니 클래스(동일한 펀드 내 판매수수료의 부과시점 등에 따라 구분되는 펀드 세부종류)에 따른 비용 차이 때문이었다. 본인은 창구에서 C클래스를 가입했고 동료는 온라인 전용 A-e 클래스에 가입했는데 5년간 누적된 비용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음을 알고 미리 확인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 200선'으로 펀드 투자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 7가지를 소개했다.

◇장기 펀드 투자자는 A클래스 유리... 단기투자자는 판매수수료 없는 C클래스 유리 = 펀드는 가입자격 및 판매경로 등에 따라 종류(클래스)별로 판매수수료·보수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목적, 투자기간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펀드투자의 첫걸음이다.

장기투자자(예: 3년 이상) 목적이라면 A클래스가 C클래스에 비해 유리하다. A클래스는 가입시 1% 내외의 1회성 선취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매년 내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또한 C1, C2 등으로 표시되는

종류별로 판매수수료·보수 달라

온라인 가입엔 '온라인 전용' 선택

펀드성과 좋으면 성과보수 부담 속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꼭 체크해야

재간접펀드 추가비용 부담 발생 유의

CDSC클래스는 매년 판매보수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 비용부담이 커서 A클래스나 C클래스에 비해 비쌀 수도 있으므로 보수와 수수료를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클래스 간 비용차이를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클래스별 비용부담 예시'를 참고, 보다 쉽게 본인에게 적합한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

단기투자자(예: 1년 이내) 목적이라면 C클래스가 A클래스에 비해 유리하다. C클래스는 판매보수가 A클래스보다 높지만 가입시 선취수수료를 내



지 않아도 되므로 단기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한편, 단기투자자는 가입 초기의 판매보수율이 높은 CDSC 클래스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보수 펀드 전액환매 의무 유의·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체크 = 가입할 펀드를 정했다면 창구에서는 클린클래스를,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두 클래스는 창구판매 클래스에 비해 판매보수가 저렴하다. 온라인 클래스는 클래스명에 알파벳 'E'나 'S'를 포함하고 있으며, 클린클래스는 'G'를 포함하고 있다. 판매창구에서 '투자권유설명서'

를 작성하는 투자자는 G클래스에 가입,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중전에는 온라인 클래스가 없는 펀드들이 많았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설정되는 모든 증권형 펀드에 온라인 클래스가 의무화되므로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펀드의 수익률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펀드를 성과연동 운용보수 펀드(통칭 성과보수 펀드)라고 한다. 성과보수 적용 펀드는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유사한 정률보수 펀드에 비해 약 50% 정도 저렴한 기본보수(운용

보수)만 내면 되지만, 펀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정률보수 펀드보다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펀드의 투자설명서에는 '환매시 기준가격에 따른 성과보수 부담 사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본인의 목표수익률, 투자기간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대다수 펀드에서 환매수수료는 가입후 1~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부과되지만 펀드에 따라서는 10년 동안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펀드 가입 단계에서부터 투자 예상 기간과 환매수수료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비교 확인해봐야 한다. 단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펀드의 투자비용은 총보수·비용(판매비용+ 운용비용+수탁·사무관리보수+기타비용)으로 결정되지만 재간접 펀드는 펀드가 편입하는 투자대상 펀드의 비용이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 비용을 합산한 합성 총보수·비용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합성 총보수·비용은 투자설명서의 '보수 및 수수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박규준 기자 abc84@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도입... 소비자 합리적 선택 기대

금융 이슈 따라잡기

비교 어려운 서비스·수수료 내역
가입 유·지시 '자문·권유' 택해야
자문·판매업자는 비용 공지 의무

조만간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문과 권유 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서비스 및 수수료 고지 내용을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워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6년 3월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방안이 발

표된 이후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진행돼왔다. 2016년 3월 금융당국은 과거 고객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일반 금융소비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7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자문업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개정된 규정으로 자문업자 진입장벽 완화, 자문업무 수행 준칙 등이 마련됨에 따라 조만간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시작되면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권유를 포함한 기존 판매채널의 판매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자문과 권유 서비스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별로 제공되는 세부 서비스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그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문업자와 판매업자는 상호간 서비스 내역과 수수료를 비교 가능하도록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도입되면 자문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역과 그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고 고객은 세부 서비스 중에서 선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권유서비스에 대한 세부서비스 내용 및 비용정보와 함께 자문서비스에 대한 세부서비스 내역과 비용도 함께 제공되어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비용 고지체계는 지불하는 주체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자문업자의 서비스 및 비용과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상담→계약체결→계좌 및 고객관리(유지관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자문서비스의 경우에는 상담과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의 경우에는 자문업자가 서비스 내역과 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고지하고 이를 고객이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문상담 후 판매사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고지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지불된다. 반면 권유를 통한 판매서비스의 경우에는 현재 서비스별로 구분되지 않고 지불 주체에 따라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로 구분되어 비용이 고지되고 있다.

판매보수는 판매 및 계좌관리 서비스 등의 대가로 펀드가 판매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판매수수료는 펀드투자상담 및 계좌관리 서비스 등의 대가로 고객이 판매회사에게 지

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매수수료는 펀드의 정책에 따라 가입 시(선취수수료) 또는 환매시(후취수수료)에 받기 때문에 펀드에 따라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자문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권유를 통한 판매서비스의 경우에는 지불 주체별로 구분되어 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서비스별 비용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판매서비스의 경우에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역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여 고지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두 서비스 간 비용의 차이는 자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과, 권유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비교하려면 자문서비스의 세부 내역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만큼 권유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내역과 수준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규복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 연구위원
자료=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DBDB DEEP

당신에게 DEEP

Data를 베이스로 Digital을 베이스로
당신에게 DEEP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기술!
이제 신한카드의 빅데이터는 DEEP으로 진화한다!

신한카드 DEEP이란?

'혜택'의 깊이는 더하고 '디자인'과 '디지털'로 확장하는
고객 맞춤형 상품 철학입니다.



- 당신의 소비에 맞춘 다양한 혜택을 DREAM
- 당신의 감성에 맞춘 유니크한 DESIGN
- 당신의 편의에 맞춘 내 손안의 DIGITAL

당신에게 DEEP한 EVENT!

당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Deep Dream 런칭기념 사연응모 이벤트)

- 경품 : 드림하우스 만들기(7천만원 상당 인테리어 지원), 제주도 한달 살기(6백만원 상당 체류비), 유럽/미주 왕복항공권 등
- 기간 : 2017.9.22~11.15 (전화원대상 응모이벤트,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창립10주년 기념 10·10·10 페스티벌)

- 경품 : 2018 볼보XC60 신형(1명), 주유상품권 300만원(5명), LG V30/아이폰X(10명) 등
- 기간 : 2017.9.25~10.31 (이벤트 응모 필수,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잇단 수주 낭보에 조선株 ‘뱃고동’

삼성重, 유럽선사와 1조 체결
발표당일 10% 가까이 급등
현대重, 공시후 5% 이상 상승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 호재로
“내년 바닥 탈출” 장밋빛 전망

조선사들의 주가가 모처럼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것도 조선주 투자심리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했다.

26일 삼성중공업은 전일 대비 9.80% 오른 1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약 2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대규모 수주 소식이 주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유럽 선사로부터 컨테이너선 6척을 총 1조1181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선주사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세계 2위 규모의 스위스 MSC로부터 일감을 따낸 것으로 추정한다. 2010년 대만 선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종목명	25일 증가	26일 증가	상승률
삼성중공업	10,200	11,200	9.80%
현대중공업	139,000	147,000	5.76%
현대미포조선	91,900	96,500	5.01%
한진중공업	3,605	3,855	6.93%
STX중공업	7,150	7,470	4.48%

80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을 1조 원 규모에 수주한 이후 7년 만에 상선 기준 최대 규모의 수주다.

같은 날 현대중공업도 대형 수주 소식을 전했다. 폴라리스쉬핑과 32만5000톤급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10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 주가는 5.76% 오른 14만7000원으로 마감했다. 계약금액은 총 8억 달러(약 9100억 원)로 단일 계약 기준 2012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규모다.

일감 가뭄에 시달리던 국내 조선사들이 연달아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날 증시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5.01% 오른 것을 비롯해 한진중공업

(6.66%), STX중공업(4.48%) 등 조선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규모 발주 소식에 더해 국제유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점도 조선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전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배럴당 1.56달러(3.08%) 상승해 4월 18일 이후 최고치인 52.22달러에 마감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주도의 원유생산 감축 합의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쿠르드족 독립투표에 따른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유가 상승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통상 유가가 오르면 선박보다 규모가 큰 해양플랜트 발주가 많아져 조선업계에 큰 호재로 해석된다.

잇따른 낭보에 내년 이후 조선주의 바닥 탈출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김홍균 동부증권 연구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업황이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이라며 “수주 증가 추세는 주가의 우상향 지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소리바다

“삼성전자 음원 서비스 통합으로 수혜株”

삼성뮤직이 무료 라디오 ‘밀크’ 흡수

소리바다 계약 유지 이용자 증가 효과

음원사업·IR활동 등 전망도 긍정적

삼성전자가 음원 서비스 체계를 ‘삼성뮤직’으로 통합 결정하자, 소리바다가 26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기록했다. 소리바다는 그간 삼성뮤직과 밀크로 이원화된 삼성전자 음원서비스의 공급회사다. 이번 삼성뮤직 통합 결정에도 기존 서비스 계약에는 변화가 없지만, 멜론과 공유하던 음원 파트너십이 소리바다로 일원화되면서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수혜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뮤직의 통합 결정으로 소리바다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직접 들었다.

-이번 통합 결정에 따른 영향은

“소리바다는 원래 삼성뮤직과 밀크에 음원을 공급하고 있었다. 멜론은 스마트폰, 스피커 등 삼성전자 디바이스를 통해 음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성뮤직으로 통합됐지만, 소리바다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음원 이용량이 늘어날 것인만큼 기대감은 있다. 앞으로 삼성뮤직의 음원 서비스는 전부 소리바다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 삼성뮤직은 약 1년간 서비스가 중단됐었고, 소비자는 삼성뮤직이 없어졌다고 인식했다. 서비스 개편에 따라 삼성뮤직이 새로 통합 출범하면서 이용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통합 결정 배경은 무엇인가

“삼성전자는 콘텐츠 사업에 대한 변화를 줘야 한다는 시장 니즈에 따라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삼성뮤직이 유료 서비스인 것과 달리 밀크는 ‘라디오 서비스’로 불리는 무료 서비스다. 라디오 서비스는 업체가 곡을 선정해 무료로 서비스하고, 중간 광고 등으로 수익을 냈다. 소비자가 플레이리스트를 선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음원사업 현황은 어떤가

“음원사업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17 소리바다 어워즈’를 개최했다. 유명 아이돌들이 총집합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고객을 위한 마케팅 활동도 점차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현재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IR 활동 계획은

“향후 IR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환기종목이지만 얼마 전 불성실공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 앞으로는 IR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두선 기자 sun@

신용융자 이자율 내린 키움證, 수익성 ‘빨간불’

(주식매수 자금대여)

기준 하루만 빌려도 年11.8% ‘고금리 장사’

7일 초과~90일 이하 구간별 3~4%P 낮춰

연간 이자수익 220억…올해 8.8%↓ 전망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로 ‘고금리 장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키움증권이 이자율을 대폭 인하, 금융당국과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고수 성장세를 유지해 온 만큼, 증권가에서는 우려섞인 시선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11월 3일 매매분부터 7일 이하 구간에는 연간 7.5%, 7일 초과~15일 이하 구간에는 연 8.5%를 적용한다. 이는 변경 전 이자율인 11.8%(1~15일)보다 각 3~4%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15일 초과~90일 이하 구간에는 9.0%의 이자율을 적용해 변경 전(9.75%)보다 낮췄다. 다만, 90일 초과 구간에는 연 9.5%를 적용해 기존(8.75%)보다 차등적으로 이자 부담을 높였다. 아울러 적용 방식도 체차법(구간별 이자율로 산출된 이자율 누적 적용)에서 소급법(신용 상환 시점 기준으로 금리 확정)으로 변경한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어해 주는 행위다. 키움증권은 증권업계에서도 유난히 높은 초단기(1~15일) 신용거래융자 이자율(11.8%)을 적용,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지적

키움증권 신용거래융자 변경 후 이자율

(11월 3일부터 적용, 연간 기준, 단위: %)

7일 이하	7.5	키움증권
7일 초과 15일 이하	8.5	
15일 초과 90일 이하	9	
90일 초과	9.5	

을 일각에서 받아왔다. 실제 이날 기준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을 제외한 업계 평균은 6.7% 수준이다. 이자율 인하 조정 후에도 최상위권(8%) 수준이다.

키움증권이 갑자기 이자율을 낮춘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규제 강화와 스탠스가 주효했다는 게 증권가 중론이다. 앞서 금감원은 21일 제1차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 등 두 가지 사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현실적으로 키움증권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신증권에서 추정한 이자수익 감소분은 분기 기준 52억~56억 원으로 연 기준 220억 원 규모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별도 기준 세전 순이익을 2364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기준으로는 약 8.8%의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기업 PR

거래소, ‘미니 골드바’ 상장…100g 단위 인출 가능

기준 1kg 단위로 가능했지만

투자자 편의성 위해 도입키로

금 현물시장에서 100g 단위로 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KRX)는 100g 단위의 미니 골드바 종목을 27일 KRX금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정창희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최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소액투자자들에게 국제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미니금에 투자·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KRX금시장의 거래 단위는 1g이었지만, 인출은 1kg 단위로만 가능했다. 이날 25일 종가 기준으로 금 1kg은 약 4710만 원으로, 이에는 471만 원으로도 금을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투자자 거래편의성을 고려해 인수도단위를 제외한 매매·청산 결제제도도 1kg 종목과 동일하다.

KRX금시장은 국내에서 유일한 정부 승인 금 현물 시장으로, 한국거래소가 금거래 양성화와 귀금속 산업 발전을 위해 2014년 3월 개설했다. KRX금시장은 △거래 관련 세제혜택 △투명한 가격 △저렴한 수수료 △고품질 보장 △소액거래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내매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금자금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실물인출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거래수수료는 0.25~0.3%로, 2~5%인 타 시장 대비 저렴하다.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 5만 원 내외의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이에 거래규모도 3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올해 9월 현재 1kg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각각 26.9%, 25.3% 증가한 약 23kg과 10억 40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KRX금시장은 국내 금거래의 50%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약 4톤에 달하는 거래규모는 향후 20배 이상 성장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SK증권 주파수

5년 연속 1위

고객감동브랜드지수 5년 연속 1위
모바일은 역시 SK증권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스마트폰MTS 부문 1위, 2017.04.20

고객센터 1599-8245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중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유에 비해 예금보통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스마트폰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제17-01958호
2017.08.27 ~ 2018.08.26

심사필

1 K-CSBI
Korea Customer
Surprise Brand Index

주파수

현대車 업은 모토닉 ‘13兆 수소車 시장’ 가속

내년 출시될 ‘차세대 수소 전기차’ 엔진 핵심부품 전량 공급
상반기 매출 14% 증가… LPG車 규제 완화 호재로 상승세

자동차 부품기업 모토닉이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에 엔진 핵심부품 등 다수의 부품을 공급하며, 친환경 자동차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7일 모토닉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전기차(FCEV)에 ‘CNG 레귤레이터’, ‘리셉터클’, ‘매니폴드’ 등을 공급하고 있다. CNG 레귤레이터는 압축수소가스나 천연가스 등 고압으로 압축된 가스를 2단계에 걸쳐 소정의 압력으로 감압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 제품은 2010년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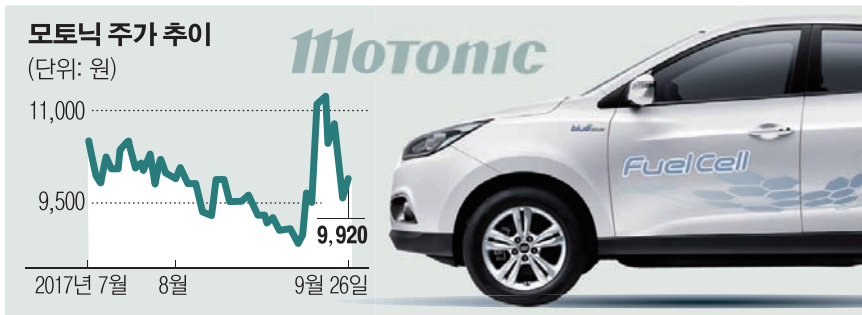
회사 측은 “2단계 감압을 통해 큰 폭의 감압비, 미세한 압력 및 유량 제어가 쉬워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출력과 효율, 내구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

다”고 설명했다.

모토닉은 CNG 레귤레이터 외에도 수소차 충전 입구 소켓인 ‘리셉터클’과 공기 및 연료를 엔진이나 레귤레이터로 옮겨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매니폴드’도 공급하고 있다.

모토닉은 현대차의 1세대 수소전기차 모델인 ‘투싼 ix’에도 해당 부품을 독점으로 전량 공급한 바 있다. 내년 초 출시하는 차세대 수소전기차 역시 해당 부품을 모토닉이 전량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차량가격은 2020년 50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져 세계시장 규모가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켓앤마켓



은 2016년 1180억 달러였던 세계 수소 생산시장 규모가 매년 5.2% 성장을 거듭해 2021년 1521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토닉은 LPI 시스템을 비롯해 변속기용 오일펌프(Oil Pump), D/Pipe, 피스톤 클러치(Piston Clutch), FPC, CVVL 등 엔진·변속기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이동차에 LPI 시스템을 100%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연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범

안심사 소위원회회를 열어 5인승 이하 목적차량(RV)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LPG 차량 수요 증가에 따른 모토닉의 매출 증대로 기대된다.

한편, 모토닉의 매출은 지난해 3분기 457억 원을 기록한 이후 4분기 508억 원, 올해 1분기 555억 원, 2분기 572억 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세원, 다음달 20일 코스닥 상장 “전기車 시대, 글로벌 영토 확장”

공조시스템 넘어 열관리 제품 확대

110만株 공모… 공모액 57억 규모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기업 세원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 공조시스템 제품을 넘어 전기차 열관리 제품까지 생산 영역을 확대, 사업확장에 나선다.

세원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IPO(기업공개)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다음달 20일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공모 예정가는 5200~6200원으로 총 110만 주를 공모하며, 공모금액은 공모가 하단 기준 57억 원 규모다.

유기철 세원 대표는 “세원은 확실한 매출처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구축된 안정된 기업”이라며 “이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사업영역 확대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971년 개인기업에서 시작한 세원은 공조시스템 관련 부품 생산에 주력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자동차 공조부품 제조기업으로 성장했다. 47년 업력의 전문화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 자동차 부품 사업에 최적화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세원은 글로벌 공조기업 한온시스템을 필두로 국내외 완성차 및 공조업체에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에어컨 히터콘덴서, 에바포레

세원물산 주가 추이

(단위: 원)



이터 등 공조부품에 관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선진화된 생산 인프라 또한 세원만의 강점이다.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전 공정 무인시스템 등 생산 인프라의 혁신화를 시도, 동종업계 대비 10%가량 낮은 원가율 수치를 기록하며 우수한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줬다.

세원은 2014년부터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8.2% 달성과 더불어 지난해 영업이익률 6%대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역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4% 상승한 22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0억 원, 당기순손실은 3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정으로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는 일회성 비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이익에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원은 26일과 27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거쳐, 다음달 12일과 13일 공모청약을 받는다.

권태성 기자 tskwon@

디지털옵틱 품에 안기는 ‘퓨처로봇’ 中 대기업과 ‘AI로봇 공급’ 협의 중

최근 디지털옵틱이 인수를 결정한 퓨처로봇이 중국 화장품 유통 대기업과 인공지능 로봇 ‘퓨로데스크’ 공급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디지털옵틱 관계자는 “중국 대기업과 이미 지난 7월 ‘퓨로데스크’ 공급을 위한 마팅을 진행했고 현재 샘플링을 위한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업체명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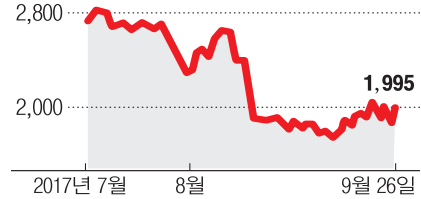
퓨처로봇이 공급을 추진 중인 ‘퓨로데스크’는 카페나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계산을 도와주는 신개념 서비스 로봇으로 유통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키오스크(Kiosk·무인계산대)에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이다.

퓨처로봇과 협의 중인 기업은 중국 대형 화장품 유통기업으로 현재 중국 전역에 3000개 이상의 H&B(Health&Beauty)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번 ‘퓨로데스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퓨처로봇은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서비스 로봇 시장의 강자

디지털옵틱 주가 추이

(단위: 원)



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H&B 스토어는 주요 고객층이 80~90년대 여성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아 시장 안정도 수월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2013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올라서는 등 세계 최대 로봇 시장으로 거듭났다.

퓨처로봇 관계자는 “현재 중국 서비스 로봇 시장은 현지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 아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해 유통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만큼 퓨처로봇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i78@

‘경영권 분쟁’ 처음앤씨, 주가 ‘반토막’ (5월초 대비)

6거래일 하락에 투자자만 낭패

B2B전문 포털기업 처음앤씨가 경영권 분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기존 경영진과 새로운 최대주주, 재무적 투자자에 주주연대까지 나서며 혼란스럽다. 그 사이 주가는 절반으로 추락해 투자자만 낭패를 보고 있다.

25일 처음앤씨의 주가는 전일 대비 3.09%(150원) 내린 4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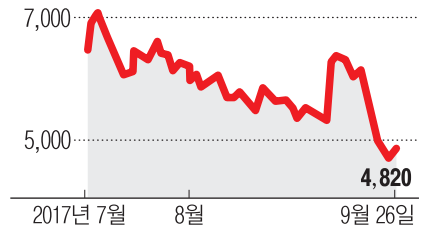
경영권 분쟁이 불씨가 됐다.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인 금상연 대표는 씨피어씨에이츠에 경영권을 양도했다.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31%(391만 주) 가운데 11.93%(230만 주를) 209억 원에 넘겼다.

씨피어씨에이츠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유한회사로 기업인수합병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처음앤씨의 최대주주에 오른 후 태극 세븐일레븐과 중국 로터스 등과 함께 한류 상품 유통에 주력할 계획이었다.

씨피어씨에이츠는 인수 자금을 대부분 외부에 기댔다.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한 후 100억 원을 세출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105억 원은 개인투자자에게 빌렸다.

처음앤씨 주가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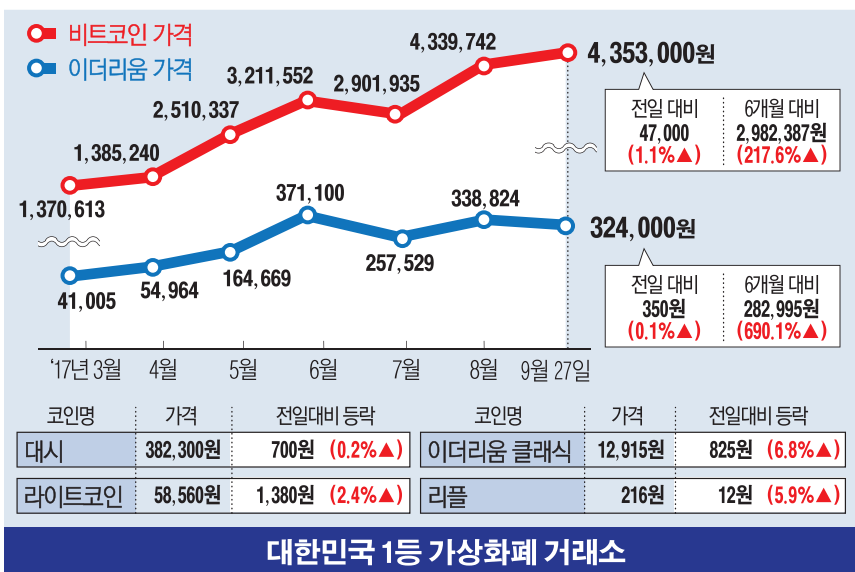
지금 입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사진은 금 전 대표 측 3명과 씨피어씨에이츠 측 3명이 더해지며 이사회조차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7월 들어서는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계속된 공방전에 주주연대도 나섰다. 처음앤씨 주주연대는 씨피어씨에이츠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18일에는 후회지분 확보를 위한 백기사로 쟁백스와 손 잡았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이 과정에서 1분기 104억 원이던 매출은 3개월 사이 7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투자자의 손실도 커졌다. 5월 초 9870원이던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4700원까지 빠지며 반토막났다. 22일에는 52주 신저가도 기록했다. 남주현 기자 jooh@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7년 9월 27일, 08:00, KST)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070 시니어 매거진
Monthly Magazine
BRAVO My Life
09 VOL.33 SEPTEMBER 2017

배우 이동준?
아니 가수 이동준!
말 해도 되는 남자,
가수로 인생 3막을 엮다

故 최인호 작가 동생
영호씨가 형을 알리다
“꽃잎은 떨어지듯
꽃은 지지 않네”
순수한 영혼을 가진
외유내강의 여인, 강주은
종류 채형 커버해주는
청바지 입기

유은실 서울여산원빈 교수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포기하면
더 큰 낭패 겪는
‘알츠하이머병’
육십삼 년대 종로동
추억 속 길 떠나기

cartoon
만화와 함께했던 우리들의 청춘
김길집, 황광원글이며 먹선에 스며들던 꿈

COVERSTORY 우리들의 청춘 만화책

- PART1. 칸과 칸 사이 만화를 예찬하다
- PART2. 우리들의 시대 그 만화, 그 만화가
- PART3. 시사만화가 박재동의 멈추지 않는 꿈
- PART4. 시니어 카툰 걸크러시 ‘누나쓰’를 소개합니다
- PART5. 추억 속의 만화방, 만화카페로 부활하다
- PART6. 만화에 웃음이 빠져보자, 국내외 만화박물관
- PART7. 요즘 만화: 웹툰과 그래픽 노블

제2인생

내 집에서 ‘도시농부’ 될 수 있을까

누구나 노후에 작물을 기르며 텃밭을 가꾸고 싶은 작은 소망이 하나씩 있다. 밭상 위에 놓을 야채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좋고, 주변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더 좋다. 여기에 약간의 용돈까지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현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그렇다고 집을 등지고 시골로 내려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절만 하면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다. 바로 도시농업이다.



시니어 골프장



지형이 완만해 시니어 라운딩에 딱 좋아 알펜시아 700 GC

건기 좋은 골프장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카트를 타고 이동하기보다는 걷기를 위해 동로와 수다를 떨어 걸어보자. 대관령의 선산한 바림과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골프장, 알펜시아 700 GC를 소개한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들

도산 안창호를 널리 알리는 것이 곧 내 삶
김재실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내 라이벌은 나혼아... 미안해요,
인생 30년도 이제 딱 찼어요”
배우 이동준? 아니 ‘누나야’ 가수 이동준

하루의 행복을 여는 라디오,
일상의 행복을 나누다
〈행복한 시니어〉의 진행자,
박영주 KBS 아나운서

생면 파스타와 곁들이는 부드러운 목넘김
가을은 유독 ‘고독’의 정취가 느껴지는 계절이다. 왕왕가리던 여름을 지나, 낙엽 같은 트랜치코트를 휘감고 조용히 무드를 즐기려 한다. 이때 한껏 분위기를 내려면 와인 한 잔 정도는 즐겨야 하지 않겠나. 여기에 고급스러운 재료로 품미를 살린 생면 파스타는 또 어떤가? 분위기, 와인, 맛, 이 세 가지를 만족스럽게 채워줄 맛집 ‘와인 북 카페’를 소개한다.

9월의 맛

이봉규 心治 데이트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 강주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 톰 행크스가 하얀 깃털이 인도하는 대로 평생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강주은도 최민수라는 깃털에 이끌려 예기치 못한 라이프가 되어버렸다. 처음 만난 강주은은 생각보다 날씬하고 예뻐했다. TV에서의 모습은 미스코리아 출신에 상남자 최민수를 주축 들게 하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크고 강해 보였는데 막상 마주한 그녀의 이미지는 부드럽고 우아했다.

가재산·김종익·육영애·윤영애·윤정자·윤종국·이찬한 등반기자
“내 자식 혼사열전”

최학 소설가
37년 전의 약속

미래로부터 **ON**
커넥티드카 세상

“자기야... 정말 자동차 회사 다니고 있는 거 맞아?”



아내가저를 자꾸 의심합니다. 진짜회사로 출근하는 거 맞냐고...
쇼핑몰도, 공연장도, 도로도, 학교도 모두 연결된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커넥티드카
그 차를 만들기 위해 이곳 저곳 연구하러 다닌 것뿐인데...
하필 이때, 같은 팀 김대리가 내일 야구장으로 출근하자는 문자를 보내네요
이래도 잡아떼는 아내의 말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현대자동차그룹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상과 연결된 새로운 커넥티드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뜻할 溫, 연결할 on, 다가온 온

미래로부터 **ON**



믿고 맡길 수 있는 만능 운전자

도로 위의 모든 사물과의 정보교환으로 안전한 자율 주행 환경을 만듭니다. 주변 차량의 목적지, 운행방향, 도로 상황들을 스스로 판단하여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 생활 비서

자동차가 모든 사물과 정보들의 연결주체가 됩니다. 주행 정보는 물론, 운전자의 건강, 쇼핑이나 생활에 관련된 사물들을 컨트롤함으로써 자동차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똑똑한 정비사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정비사에게 연락해 문제를 진단합니다. 주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 했을 때도 즉각적인 진단과 해결이 가능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교통 정보를 분석하는 교통 전문가

차량 위치, 주변차량의 목적지, 교통상황 등을 분석해 최적화 된 이동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에너지, 환경의 손실을 최소화 합니다



미래 기술의 중심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모든 것이 연결된 미래
현대자동차그룹은 당신과 함께 따뜻한 미래를 향해갑니다

HYUNDAI
MOTOR GROUP